



# EF EPI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EFSET

EF 표준 영어 시험에  
무료로 응시하세요.

[www.efset.org](http://www.efset.org)

2017

[www.ef.co.kr/epi](http://www.ef.co.kr/epi)

## 올해 새롭게 추가된 내용

1. 통계에 새롭게 추가된 국가: 앙골라, 방글라데시, 카메룬, 쿠바, 그리스,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2. 백만 명이 넘는 응시자들의 최신 시험 결과
3.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자세한 분석
4. 20개국의 영어 교육 정책 자료
5. 전 세계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영어능력지수를 다룬 리포트(EPI-s) 발간 ([www.ef.co.kr/epi](http://www.ef.co.kr/epi)에서 확인)

## 목차

---

- 04 개요
- 06 EF EPI 2017 순위
- 08 EF EPI 세부 자료 및 수치
- 10 영어와 경제, 무역
- 12 영어와 기술
- 14 영어와 혁신
- 16 영어와 사회
- 18 유럽
- 22 아시아
- 26 라틴아메리카
- 30 아프리카
- 34 중동
- 38 결론
- 40 부록 A: EF EPI에 관하여
- 42 부록 B: EF EPI 영어능력지수 등급
- 43 부록 C: CEFR 등급별 영어 사용 수준
- 44 부록 D: EF EPI 국가별 점수
- 46 부록 E: 인용자료

# 개요

2017년에도 변함없이 영어는 글로벌 의사소통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영어는 무역, 과학, 비즈니스, 외교의 언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어가 통용되는 것은 어느 한 나라의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간의 공용 언어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성인들의 영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올해 EF 영어능력지수 리포트 제7판을 발간 하였습니다. 올해의 지수는 2016년 EF Standard English Test(EF SET)를 치른 성인 백만 명 이상의 시험 결과를 토대로 80여 국가 및 지역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앙골라, 카메룬,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수천 명의 성인 응시자가 있어, 최초로 아프리카를 별개의 지역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방글라데시, 쿠바, 그리스의 영어 능력 수준을 측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개편부터 교사 연수, 직장인 대상 온라인 학습 플랫폼까지 20개 국가의 주요 영어 학습 정책을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여러 국가가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취할 수 있는 폭넓은 접근 방법을 보여줍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 실력이 확연히 향상된 국가 수의 감소**  
전 세계적으로 영어능력지수의 향상은 저조했습니다. 80개국 중 확연한 향상을 한 국가는 4개국으로, 파나마,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태국뿐입니다. 대다수 국가의 점수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절대점수가 크게 하락한 국가는 없었지만, 새로 추가된 국가들과의 근소한 점수 차로 인해 일부 국가들의 순위가 10위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 **최고의 영어 능력을 보유한 유럽, 하지만 크지 않은 격차**

유럽의 평균 영어 능력 점수는 2위 지역인 아시아보다 약간 높은 정도입니다. 점수가 낮은 유럽 변방 지역을 제외한다면 지역 평균 점수 격차가 커집니다. 올해 EPI의 상위 10개국 중 8개국이 유럽 국가들입니다. 유럽 일각에서 통합 프로젝트나 세계화 자체에 회의적이긴 하지만, 유럽의 다문화주의, 경제적 통합, 관광 자원 및 이동성은 그들의 높은 영어 실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 **아시아를 따라잡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성인들의 영어 실력**

라틴아메리카의 평균 영어 능력 점수는 아시아보다 겨우 2점 뒤쳐져 있지만, 두 지역의 영어 실력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국가 간의 점수 격차가 작아, 최고점을 기록한 아르헨티나와 최저점을 기록한 엘살바도르가

겨우 10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점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는 것은, 점수가 낮은 국가들의 영어 실력이 점수가 높은 국가들보다 빠르게 향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시아의 경우는 최고와 최저의 격차가 30점에 육박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 **여전히 측정하기 어려운 아프리카의 영어 능력**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영어 실력은 세계 평균보다 조금 아래입니다. 다만 이 결과는 9개국 시험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에 불과합니다. 평균 이상을 기록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및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나머지 7개국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인구 가중 지역 평균치를 부풀렸습니다. 2018년도 EF EPI 연구 과정에는 더 많은 아프리카 국가가 참여해서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영어 능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영어능력지수가 가장 낮은 중동**

중동 지역의 평균 영어 능력은 매우 낮습니다. 올해 지수에 포함된 대부분의 나라는 낮은 공교육 품질과 취약한 노동 시장의 구조가 성인 영어 능력 향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분쟁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동의 젊은 층에게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동시에 취약한 교육 시스템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남성보다 유창한 여성의 영어 실력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영어 능력이 뛰어납니다. 대다수 국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취업을 하기보다는 일반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확률이 더 높으며, 대학에 더 많이 진학합니다. 단, 일부 지역에서는 성별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와 중동에서 남성은 여성과 동등한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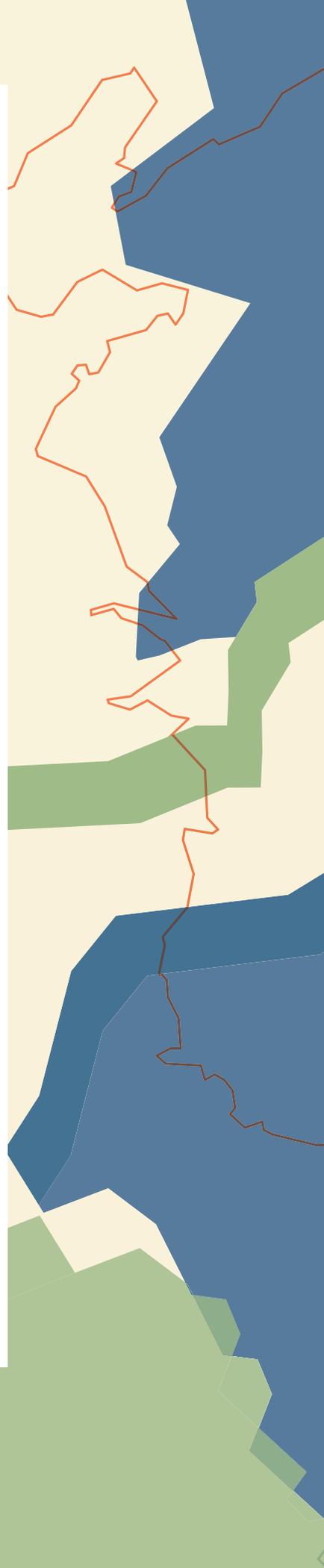
#### 젊은 사람들의 영어 실력이 상대적으로 높음

전 세계적으로 나이와 영어 능력은 반비례하지만, 생각보다 그 격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직장을 가진 성인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많이 잊어버릴 정도로 세월이 흘렀지만, 대신 배운 지식을 활용할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고 직장이나 여행을 통해 영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등의 일부 국가에서 갓 졸업한 학생과 40세 이상 성인 간의 격차는 놀랍도록 작으며,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학교에서의 영어 교육 수준이 거의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 간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였는데, 고등학교 졸업생과 40세 이상 성인 간에 20점 가까운 차이를 보였습니다.

#### 영어와 주요 경제 및 사회 지표 간의 상관관계

낮은 영어 능력을 보유한 국가에 비해서 높은 영어 능력을 보유한 국가일수록 서비스 수출이 많고, 인터넷 접근이 용이하며, 연구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강한 상관관계는 지난 EF EPI 제6판에서도 계속 나타났습니다. 영어와 이런 지표 간의 관련성은 단순히 우연하게 존재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선순환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은 영어 실력을 가질수록 생각과 서비스의 교환이 용이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활동할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되고, 그로 인해 영어 능력이 더욱 향상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EF EPI 2017 순위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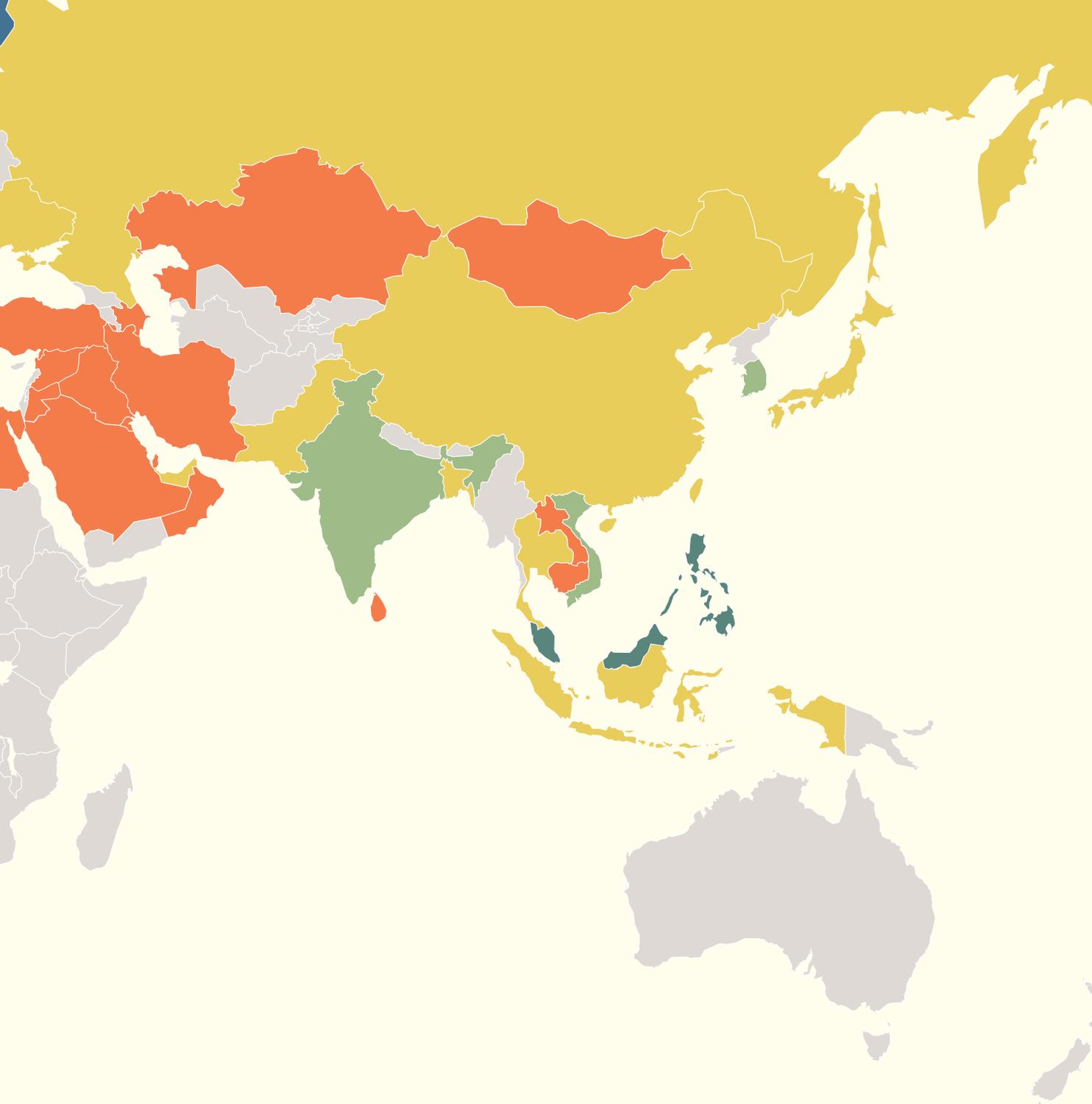
01	네덜란드	71.45
02	스웨덴	70.40
03	덴마크	69.93
04	노르웨이	67.77
05	싱가포르	66.03
06	핀란드	65.83
07	룩셈부르크	64.57
08	남아프리카공화국	63.37

## 양호

09	독일	62.35
10	오스트리아	62.18
11	폴란드	62.07
12	벨기에	61.58
13	말레이시아	61.07
14	스위스	60.95
15	필리핀	60.59
16	세르비아	59.37
17	루마니아	59.13
18	포르투갈	58.76
19	헝가리	58.61
20	체코	57.87
21	슬로바키아	57.63

## 보통

22	불가리아	57.34
23	그리스	57.14
24	리투아니아	57.08
25	아르헨티나	56.51
26	도미니카공화국	56.31
27	인도	56.12
28	스페인	56.06
29	홍콩	55.81
30	대한민국	55.32
31	나이지리아	54.74
32	프랑스	54.39
33	이탈리아	54.19
34	베트남	53.43
35	코스타리카	53.13



**미흡**

<b>36</b> 중국	52.45
<b>37</b> 일본	52.34
<b>38</b> 러시아	52.19
<b>39</b> 인도네시아	52.15
<b>40</b> 대만	52.04
<b>41</b> 브라질	51.92
<b>42</b> 마카오	51.87
<b>43</b> 우루과이	51.73
<b>44</b> 멕시코	51.57
<b>45</b> 칠레	51.50
<b>46</b> 방글라데시	50.96

<b>47</b> 우크라이나	50.91
<b>48</b> 쿠바	50.83
<b>49</b> 파나마	50.68
<b>50</b> 페루	50.50
<b>51</b> 콜롬비아	49.97
<b>52</b> 파키스탄	49.88
<b>53</b> 태국	49.78
<b>54</b> 과테말라	49.52
<b>55</b> 에콰도르	49.42
<b>56</b> 튀니지	49.01
<b>57</b> 아랍에미리트	4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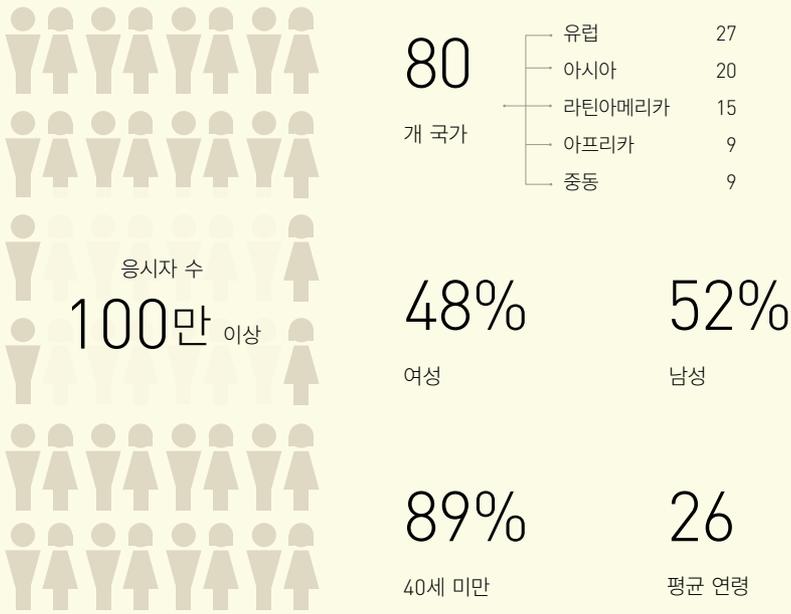
**부족**

<b>58</b> 시리아	48.49
<b>59</b> 카타르	48.19
<b>60</b> 모로코	47.91
<b>61</b> 스리랑카	47.84
<b>62</b> 터키	47.79
<b>63</b> 요르단	47.40
<b>64</b> 아제르바이잔	46.97
<b>65</b> 이란	46.60
<b>66</b> 이집트	46.51
<b>67</b> 카자흐스탄	45.95
<b>68</b> 베네수엘라	45.71
<b>69</b> 엘살바도르	45.70

<b>70</b> 오만	44.48
<b>71</b> 몽골	44.21
<b>72</b> 사우디아라비아	43.98
<b>73</b> 앙골라	43.49
<b>74</b> 쿠웨이트	43.14
<b>75</b> 카메룬	42.45
<b>76</b> 알제리	42.11
<b>77</b> 캄보디아	40.86
<b>78</b> 리비아	38.61
<b>79</b> 이라크	38.12
<b>80</b> 라오스	37.56

# EF EPI 세부 자료 및 수치

## 시험 응시자에 대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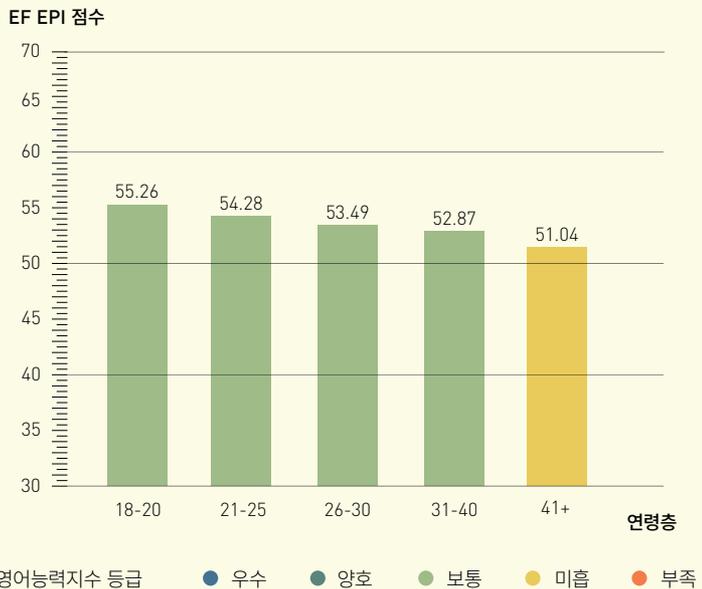


## 성별과 나이가 영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 글로벌 성별 차이



### 글로벌 연령별 차이



## EF EPI 2017의 핵심 내용

상승 ↑

5

국가

소폭 상승 ↗

44

국가

소폭 하락 ↘

24

국가

하락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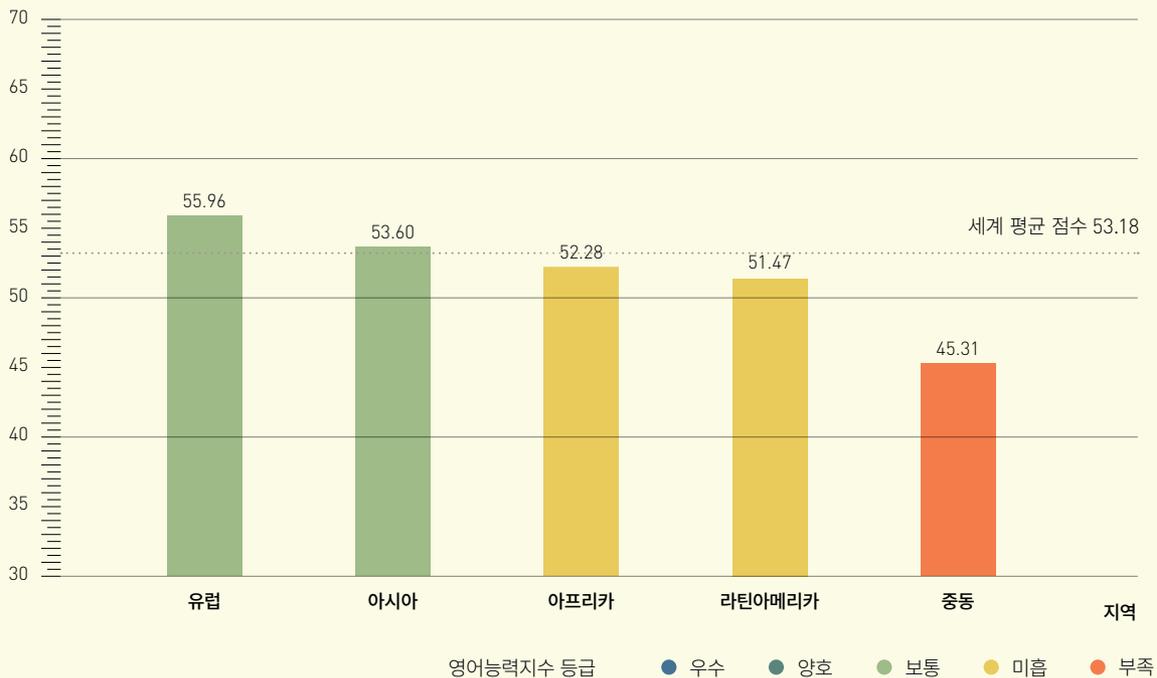
국가

## EF EPI 2017 지역별 동향

	유럽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최고 수준 국가	01 네덜란드	05 싱가포르	25 아르헨티나	08 남아프리카공화국	57 아랍에미리트
최저 수준 국가	64 아제르바이잔	80 라오스	69 엘살바도르	78 리비아	79 이라크
최대 상승	+2.00 리투아니아	+2.57 태국	+2.60 파나마	+1.31 튀니지	+3.07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하락	-1.22 체코	-1.47 카자흐스탄	-1.89 아르헨티나	-1.95 모로코	-0.93 아랍에미리트

## EF EPI 지역 평균

EF EPI 점수



# 영어와 경제, 무역

세계적으로 국가 경제의 국제 무역 의존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은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GDP의 20% 수준이었으나 오늘날에는 3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런 국제 거래에는 공용어 사용이 요구되고, 이때 통용되는 언어는 대부분 영어입니다. 영어 능력과 여러 가지 수출입 지표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물류 성과(도표 A), 수출 서류 및 수입 시기 등이 포함됩니다.

##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EF EPI 리포트에서 사업 용이성과 영어 능력(도표 B) 사이의 상관관계는 계속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혹은 지역 차원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가에게는 영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의 한 부분으로서, 완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로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체의 경쟁자로서 등등 다양한 형태로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비즈니스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 영어와 경제 발전

세계 경제 환경에서 높은 영어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능력은 여러 경제 지표와 상관관계에 있으며, 여기에는 국내 총생산 및 1인당 국민 총소득 등이 포함됩니다(도표 C). 개발 도상국의 경우, 제조업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하려면 높은 영어 실력을 갖추고 국제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어 능력과 서비스 수출 사이에는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도표 D).

## 언어적 다양성

유럽이 다언어 주의를 촉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언어적 다양성을 가진 지역이 유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국가에서 특정 지역 및 부족 언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개발 도상국들은 독점적인 무역 상대국이 있는데, 대체로 과거 식민 지배 국가이며, 이들과는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의사소통합니다. 이 언어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제1외국어로 교육하며,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해당 언어를 사용하여 가르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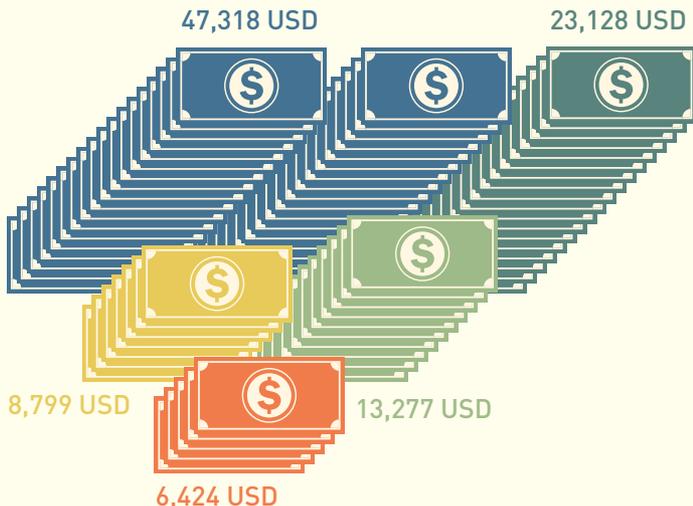
이러한 다양한 언어적 배경에서 영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학습법이 존재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다른 언어 교육을 포기해야만 영어 교육이 가능한 건 아니라는 것을 정책 입안자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의 영어

영어는 또한 세계 최빈개도국(LDC)의 경제 환경에서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UN 세계 관광기구 자료에 의하면, LDC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1995년 4백만에서 2014년 2천 5백만까지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해외 관광객의 대부분은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절실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늘어나는 관광 산업 수요를 충족시킬 영어 구사가 가능한 현지 인력이 필요합니다.

## 영어 실력과 개인 소득 간의 밀접한 관련

EF EPI 영어능력지수 등급에 포함된 국가에서 측정된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을 보면, 영어 능력과 개인의 소득 사이에는 명확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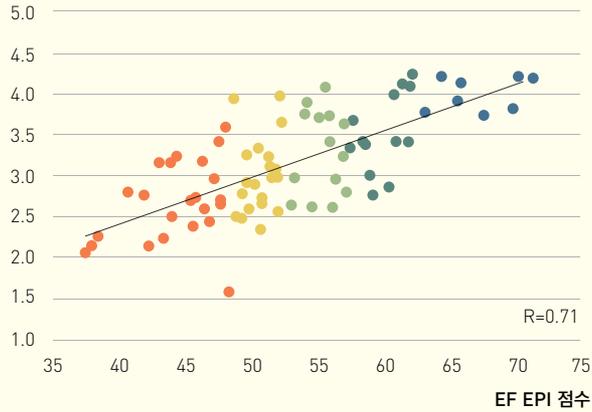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출처: 세계 은행(World Bank), 2015

도표 A  
영어와 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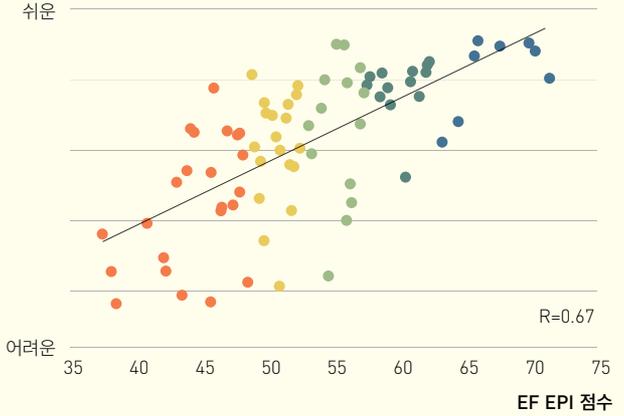
물류 성과 지표



출처: 세계 은행(World Bank), 2016

도표 B  
영어와 비즈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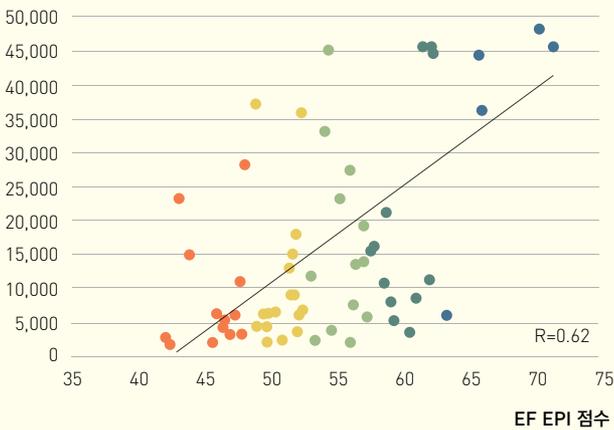
비즈니스 용이성 지표



출처: 세계 은행(World Bank), 2016

도표 C  
영어와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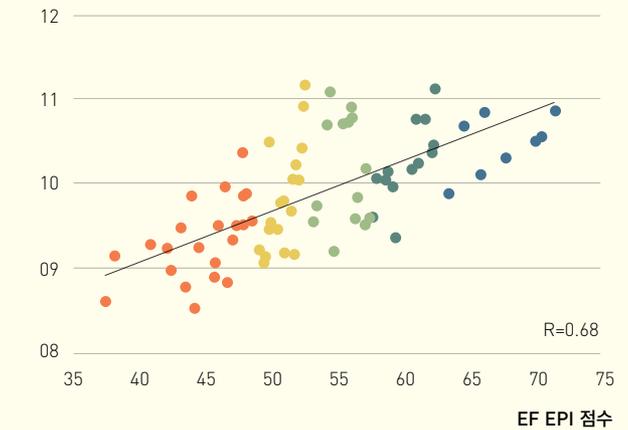
평균 총소득(단위 USD, 2016년 환율 기준)



출처: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2016

도표 D  
영어와 서비스 수출

서비스 수출 (BoP, 현재 USD, 로그 척도)



출처: 세계 은행(World Bank), 2015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영어와 기술

인터넷 상위 1천만 웹사이트 중 약 52%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능력이 있는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런 방대한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더욱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높은 인터넷 사용률과 높은 영어 능력 사이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도표 E), 광대역 이용 및 다양한 보안 서버를 통한 인터넷 접속 방법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도표 F, G). 인터넷 접속이 많을수록 영어를 접할 기회를 많이 얻게 되며, 그로 인해 영어 능력이 더욱 향상됩니다. 영어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 더 많은 온라인 영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식을 공유하는 세상

세계의 최신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중 대다수는 미국 기업이며,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일반적으로 영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머의 영어 능력이 낮으면 IT

개발 및 컴퓨터 과학 분야의 자료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경우 IT 인프라 및 전자 상거래 개발을 관리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 전문가 인력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 기술과 무역

기술은 모든 유형의 무역을 강화하고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거래를 만들어 냅니다.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세계 수출 금액은 2014년 기준 3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유럽은 높은 영어 능력을 기반으로 이런 서비스를 수출하는 최대 국가이며, 동년 세계 수출액의 58%를 차지했습니다. 정보 및 컴퓨터 기술(ICT) 서비스 수출과 영어 능력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도표 H). 이 분야로의 확장을 꾀하는 개발도상국들은 기술은 물론, 국제 고객들과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온라인 영어 학습

기술은 지역 내에서의 영어 교육보다 개별 학습자에게 보다 우수한 영어 자료와 양질의 영어 학습을 제공하는 가장 뛰어난 영어 학습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 사용의 빠른 증가와 공교육 및 사교육에서의 온라인 영어 교육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론상으로는 학교 외 교육으로 영어 실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MOOC(온라인 공개 수업)는 학생 수를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능력 인증을 취득한 경우,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영어 학습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영어 능력을 인증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오프라인 인증처럼 온라인 인증도 검토하고 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영어 실력 향상과 직결되는 인터넷 접속의 용이성

인터넷 보급률(한 국가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 비율)은 EF EPI 영어능력지수 조사가 거듭될수록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영어와 인터넷 접속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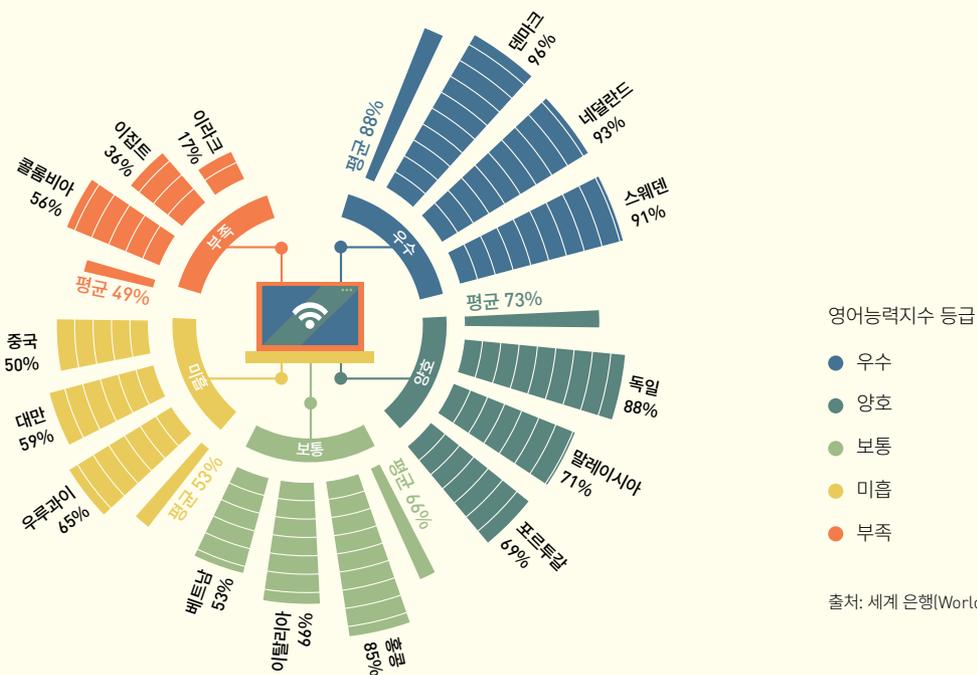


도표 E  
영어와 인터넷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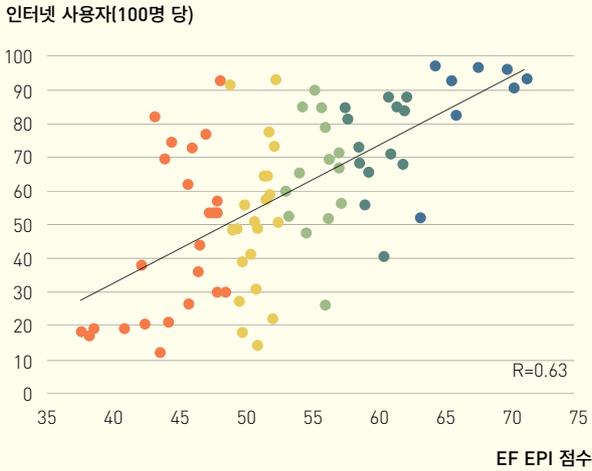


도표 F  
영어와 광대역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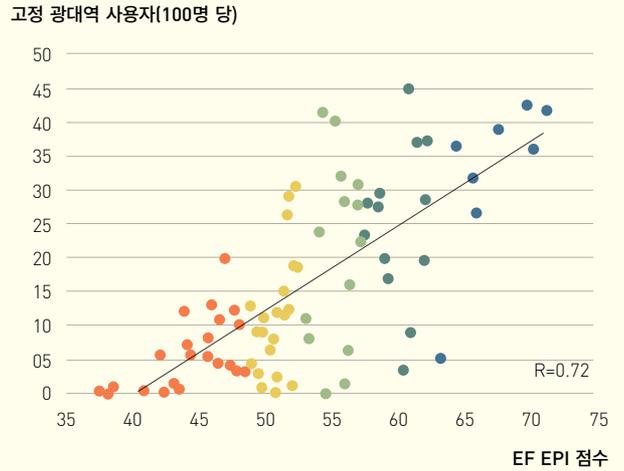


도표 G  
영어와 인터넷 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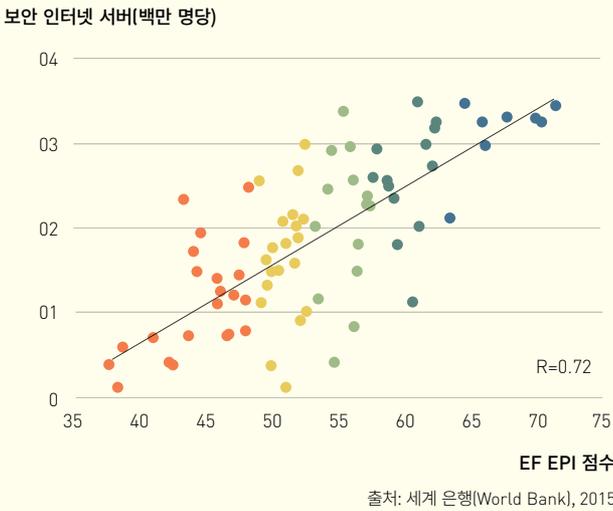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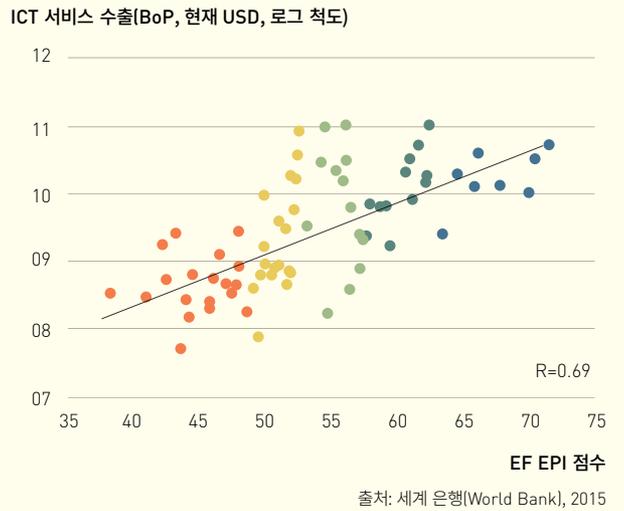


도표 H  
영어와 ICT 서비스 수출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영어와 혁신

좋은 아이디어는 어떤 언어로도 표현될 수 있지만, 영어로 공유되었을 때 가장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 영어 사용자 수와 더불어, 학술 잡지부터 트위터 글이나 TED 강연에 이르기까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플랫폼들은 영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과학과 기술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번역에 할애될 시간은 거의 없애시피 합니다.

## 연구와 개발

EPI 조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한 국가의 영어 능력지수는 국민 1인당 R&D 연구원 수, 그리고 R&D 분야 투자 규모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도표 I, J). 연구원들은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전 세계의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의 새로운 발견들을 확인하기 위해 영어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영어 실력과 지적 재산의 사용 수익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도표 K). 높은 영어 능력을 보유한 국가에서의 혁신은 언어적 장벽의 제약이 적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더 쉽게 드러나고, 공유되고, 그로 인해 독자적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쉽습니다.

## 영어를 통한 아이디어의 공유

중세 시대에 라틴어가 그랬듯이, 영어는 명백히 현대 사회에서 과학의 언어입니다. SCImago 학술지 랭킹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종의 과학 학술지 모두가 영어로 출판되며, 국가의 영어 능력과 백만 명당 발간 되는 과학 및 기술 학술지의 수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도표 L). 또한 영어 논문을 발표한 과학자의 논문이 다른 언어로 발표된 논문보다 훨씬 더 많이 인용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공유될수록 탄력을 받기 때문에, 글로벌 과학 커뮤니티의 통합은 자연스럽게 더 빠른 혁신을 이룹니다.

## 협업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 협업 또한 일반적인 개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네덜란드, 스웨덴, 싱가포르 등 매우 높은 영어 능력을 보유한 국가에서 출판된 과학 학술지의 반 이상이 최소한 한 명 이상의 해외 연구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영어 능력을 보유한 인도, 일본, 중국 등은 30% 미만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학들은 국제 협업 연구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대학원 과학

프로그램에 전문 영어 강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더욱 몰입도 높은 환경에서 영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대학원생을 해외로 파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학생들의 경력개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의 평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 세계 대학 순위는 연구 발표와 인용에 크게 좌우되는데, 이는 모두 높은 영어 실력에 의해 촉진됩니다. Times Higher Education의 2017년 세계 대학 랭킹 상위 20개 대학 중 오직 한 곳만 영어가 아닌 언어를 주 언어로 사용합니다.

## 영어는 혁신을 이루기 위한 핵심 요소

영어 능력은 연구개발 투자비, 1인당 연구원 및 기술자 숫자 등 혁신의 몇 가지 주요 척도와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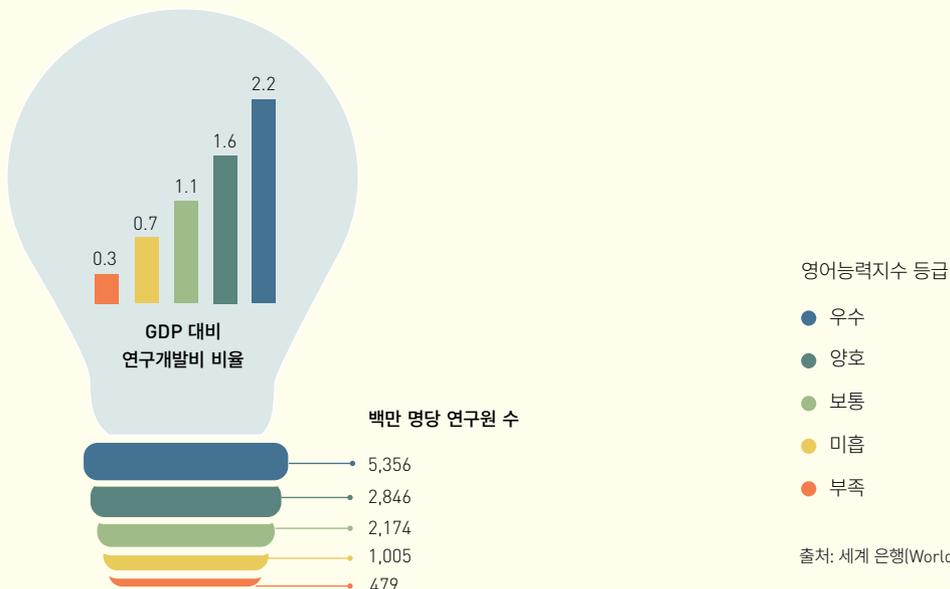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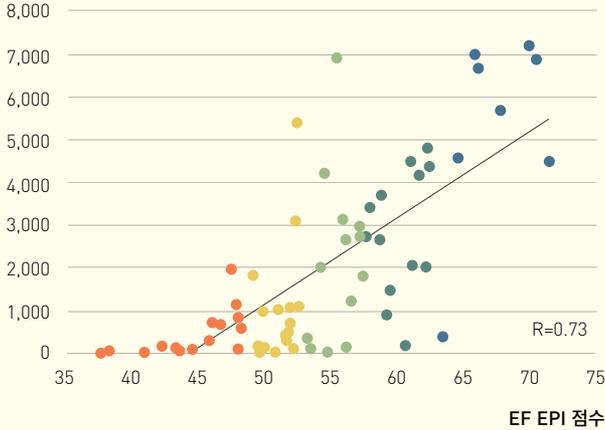


도표 I

### 영어와 연구

R&D 연구원 수(백만 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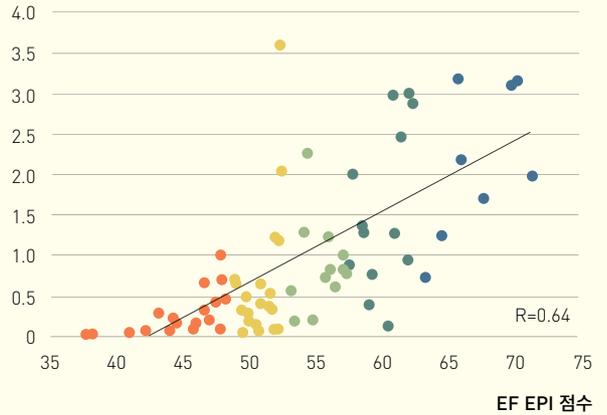


출처: 세계 은행(World Bank), 2015

도표 J

### 영어와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GDP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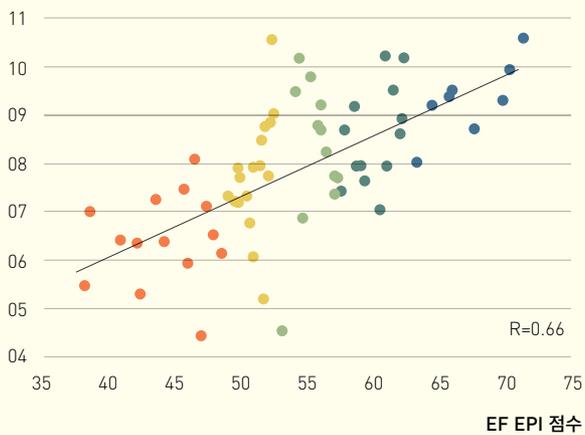


출처: 세계 은행(World Bank), 2014

도표 K

### 영어와 IP 수익

지적 재산권 사용료 및 수입금(BoP, 현재 USD, 로그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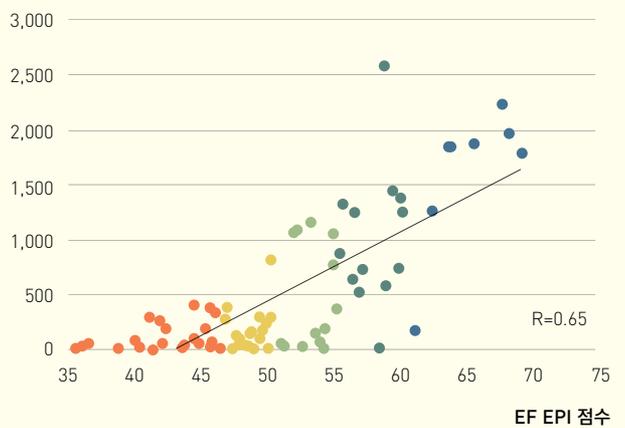


출처: 세계 은행(World Bank), 2015

도표 L

### 영어와 학문

1인당 과학 및 기술 저널 기사



출처: 세계 은행(World Bank), 2013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영어와 사회

성인 영어 능력 수준은 한 국가의 전반적 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인간개발지수(도표 M) 등 다양한 개발 지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영어와 이와 같은 사회적 요소 간의 연계는 단순한 인과관계로만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 발전은 영어 교육에 대해 새로운 자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는 곧 다시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순환 구조를 보입니다.

## 학교에서의 영어 교육

기초 교육 보장은 영어 능력 수준을 올리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이렇게 영어 능력과 학력(도표 N)의 상관관계가 보편적인 교육 보장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학교 수업만으로는 영어 능력의 향상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우수한 학교에서 영어 교육이 의외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학교에서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인의 문해력 수준과 영어

능력 간에는 연관성이 없으며, 교육은 일상 생활에서의 영어 사용 비중, 영어 능력의 사회적 가치, 사회에서 과거와 현재에 영어가 가지는 역할 등과 더불어 성인의 영어 능력을 가능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 영어와 신세대

대부분 국가에서 젊은 층은 40세 이상 성인들보다 영어를 잘합니다. 과거 수십 년 전과 비교하면, 오늘날의 영어 교육은 더 이른 시기에 시작되며 더 집중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구의 평균 연령이 높은 국가들이 젊은 인구가 많은 국가들보다 고급 영어를 구사합니다.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과 국가 전체 영어 수준의 상관관계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도표 O).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세계에서 평균 연령이 높은 나라를 조사하면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평균 연령이 낮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전반적으로 영어

수준이 낮은 반면, 평균 연령이 높은 유럽 지역은 높은 영어 수준을 보입니다.

## 영어와 여성

성 역할이 보다 진보적인 사회의 구성원들이 영어를 더 유창하게 합니다. 일례로 영어 능력과 농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성인 여성의 비율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보입니다(도표 P). 이전의 모든 EF EPI에서 지역, 소득을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영어를 더 잘 구사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여성은 21세기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핵심적인 인력 풀을 구성하고 있으며, 여성의 취업률이 가장 낮은 국가의 경우는 여성의 교육과 커리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 국가 발전에 따른 영어 수준 향상

인간개발지수(HDI)는 국가별로 평균 수명, 교육, 1인당 국민 소득에 기반하여 삶의 질을 평가합니다. 각 EF EPI 영어능력지수 등급의 HDI 평균 점수를 보면, 영어 능력과 삶의 질이 비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개발지수(HDI)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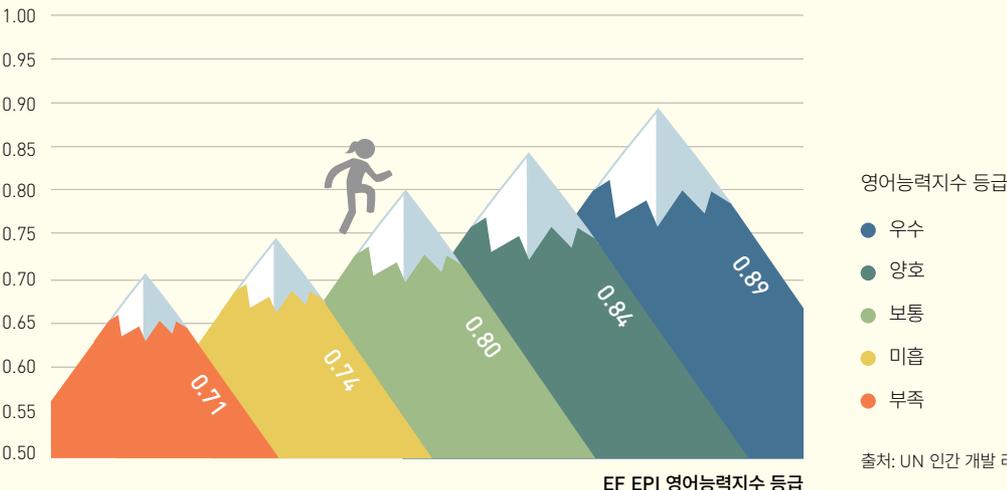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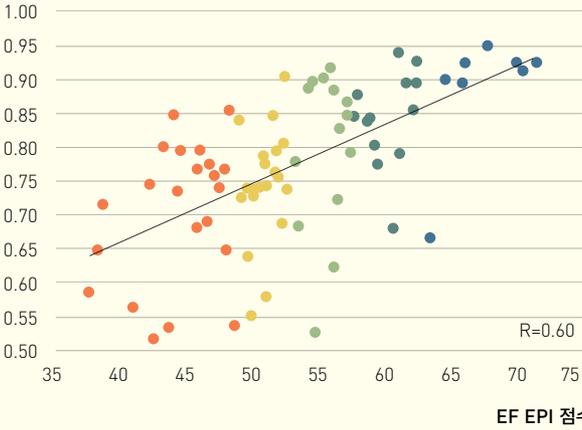


도표 M

### 영어와 삶의 질

인간개발지수(H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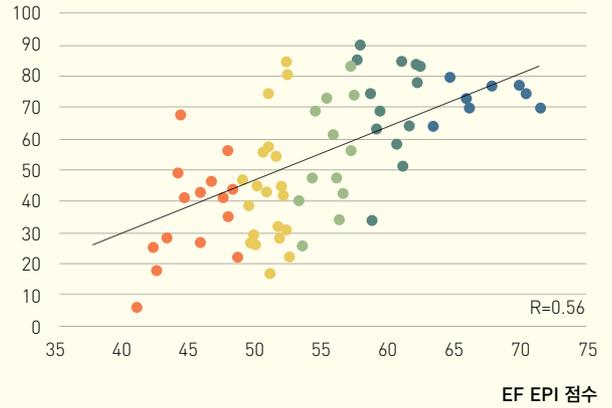


출처: UN 인간 개발 리포트, 2016

도표 N

### 영어와 교육

교육 성취도. 최소 고등교육 과정을 완료한 25세 이상 인구(전체 누적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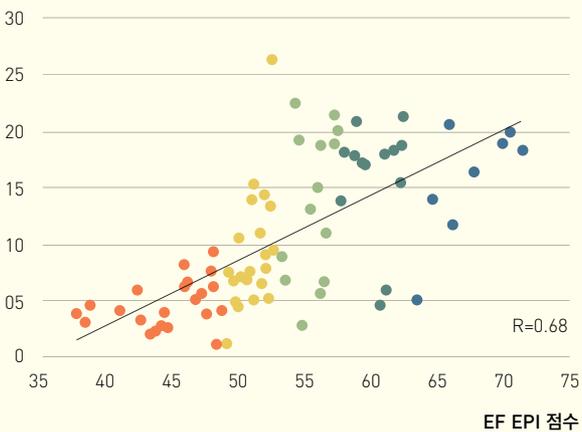


출처: 세계 은행(World Bank), 2014

도표 O

### 영어와 인구 연령

65세 이상 인구(전체 인구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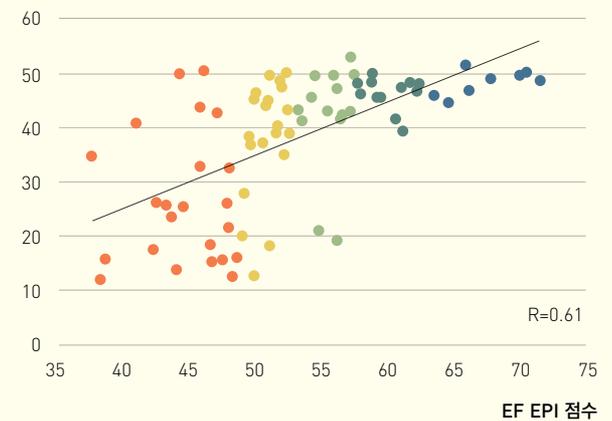


출처: 세계 은행(World Bank), 2015

도표 P

### 영어와 여성 인력

비농업 분야 취업 여성 비율(전체 비농업 취업자 대비 %)



출처: 세계 은행(World Bank), 2013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유럽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EF EPI 순위

01	네덜란드	71.45	12	벨기에	61.58	23	그리스	57.14
02	스웨덴	70.40	14	스위스	60.95	24	리투아니아	57.08
03	덴마크	69.93	16	세르비아	59.37	28	스페인	56.06
04	노르웨이	67.77	17	루마니아	59.13	32	프랑스	54.39
06	핀란드	65.83	18	포르투갈	58.76	33	이탈리아	54.19
07	룩셈부르크	64.57	19	헝가리	58.61	38	러시아	52.19
09	독일	62.35	20	체코	57.87	47	우크라이나	50.91
10	오스트리아	62.18	21	슬로바키아	57.63	62	터키	47.79
11	폴란드	62.07	22	불가리아	57.34	64	아제르바이잔	46.97

## 국제 협업으로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유럽

유럽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을 보입니다. 현대 유럽의 특징은 세계주의와 국제 협업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오늘날의 글로벌화된 세계에서의 협업은 모두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조사된 5개 지역 중 유럽은 가장 높은 수준의 대학 간 교류 협력, 가장 활발한 국가 간 인적 교류, 그리고 가장 완성된 경제 통합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점점 더 많은 유럽인이 그들의 공동 프로젝트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주의 정치가들은 지난 수십 년간의 작업을 되돌린다는 공약으로 표를 얻고 있습니다. 영어의 발상지인 영국은 최근 유럽 연합을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영어의 역할은 바뀌지 않겠지만, 유럽 일부에서 영어 교육에 대한 반동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 지역별 동향

비영어권 국가 중에서는 북유럽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영어 실력이 뛰어납니다. 우수 등급을 기록한 유럽 국가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초등학교부터 모든 학생에게 영어를 필수 외국어 과목으로 교육합니다. 둘째, 모든 수준의 영어 학습에서 영어를 문법적 정확성보다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접근하며, 많은 대학 및 학위 프로그램에서 영어를 주 교육 언어로 사용합니다. 셋째, 이들 국가의 시민들은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또한 직장과 TV 등 일상 속에서 영어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TV의 영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더빙을 하지 않습니다.

영어능력지수 양호 등급의 국가들은 이웃 우수 등급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영어능력 지수의 조건들을 일부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독일의 경우, 학교에서 영어 의사소통을 잘 가르치지만,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 일상 생활에서 영어를 접할 기회는 적습니다. 벨기에와 스위스의 경우, 대학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영어와 자국어가 동반자 혹은 경쟁자의 관계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영어 TV 방송을 더빙하지 않고 방영하지만, 대학 교육 과정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드뭅니다.

### 개선이 필요한 부분

평균적으로 유럽의 영어 능력은 다른 지역보다 높긴 하지만, 향상되는 추세는 아닙니다. 일부 유럽 경제 대국에서의 성인 영어 능력은 효과적인 비즈니스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특히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의 경우 공립 학교의 실용 영어 회화 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대학 학위 프로그램에서 전공 분야의 영어 교육을 진행하고, 성인들에게는 커리어에 맞는 영어 실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영어를 접할 기회가 적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노출을 실제적으로 늘린다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의 변방 국가들은 훨씬 낮은 영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과 교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의 경우는 그리스,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보다 영어 사용 빈도가 훨씬 낮습니다. 세계화를 거부하고 지역 언어를 선호하는 민족주의 정치가들의 부상 또한 학교 및 대학에서의 영어 교육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계속해서 영어 능력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면, 영어 능력이 더 높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 정책

유럽의 영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공교육 시스템의 커리큘럼 및 평가 도구 개편으로 이루어집니다. 폴란드 프로세스와 유명한 에라스무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대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유동성을 성공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현재 성인 영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시행하는 유럽 국가는 없지만, 기업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널리 보급돼 있으며, 개인들도 국비 지원으로 공교육 시스템을 통한 재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럽의 영어 교육 정책

## 독일

양호

EF EPI 점수: 62.35

80개 국가 중 9위

###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기관

2004년에 설립된 이 비영리단체는 초등 및 중고등학교의 수학, 독해, 작문 및 외국어 교육의 표준을 설정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외국어 학습은 교육과정 동안 최소 5년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보통 영어가 많이 선택됩니다. 이 단체는 2006년부터 독일 전역에 걸쳐 학생들에게 시험을 시행해 왔습니다. 경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고자 시험 결과는 공개되지 않지만, OECD에 의한 제삼자 평가에 의하면 독일 교육 시스템에서 전반적인 교육 성과는 항상 되고 교육 불평등 수준은 감소했습니다.

## 헝가리

양호

EF EPI 점수: 58.61

80개 국가 중 19위

### 캠퍼스 헝가리

2012년부터 2015년에 걸쳐 진행된 발라시 협회의 캠퍼스 헝가리 프로그램은 헝가리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환 학생 및 교환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헝가리 학생 2만 명 이상에게 장학금이 지원되었고, 이중 대다수의 학생이 영어권 국가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해외 학생들에게는 헝가리의 외국어 대학 프로그램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웹 포털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발라시 협회의 이 프로그램은 더 많은 헝가리 학생을 해외로 유학 보내고, 동시에 헝가리 대학의 외국인 학생 비율은 늘리는 양방향 유학 독려 효과가 있었던 흔치 않은 사례였습니다.

## 스페인

보통

EF EPI 점수: 56.06

80개 국가 중 28위

### 이중언어 교육 프로젝트

교육부가 후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20년 전에 시작됐으며, 어린 학생들에 대한 영어 교육을 학교 차원에서 실행하여 이중언어 구사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드리드 내 350개 이상의 공립 초등학교와 180개 사립 초등학교가 영어와 스페인어 2개 국어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다른 지역도 유사한 이중언어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언어 학교의 교사들은 C1 레벨 이상의 영어가 필수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한 대학의 연구에서 과학을 영어로 공부한 마드리드 지역 학생들의 과학적 지식 수준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기준으로 다른 또래 학생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중언어 교육 프로젝트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 러시아

미흡

EF EPI 점수: 52.19

80개 국가 중 38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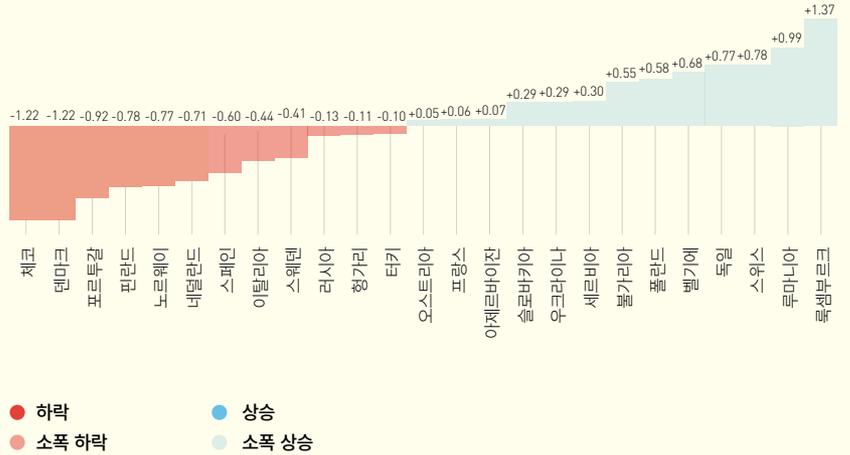
### 5/100

5/100 프로그램은 2020년까지 러시아 내 5개 대학을 세계 100위 대학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러시아는 아직 갈 길이 험난합니다. 2017년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대학 랭킹에서 러시아 대학 중 가장 높은 순위는 188위였습니다. 타임즈의 순위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연구, 인용, 그리고 '국제적 전망'에 기반하여 산정되며, 이 기준 모두에 영어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대학의 순위를 높여 5/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의 특정 대학들은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 수를 늘리고 교사들에게 영어 자격 프로그램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EF EPI 추세

올해 유럽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으며, 대부분 국가에서 약간의 개선 또는 하락만 보였습니다. 루마니아와 룩셈부르크가 가장 큰 진척을 보였으며, 체코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한편 슬로바키아는 소폭 상승하여 보통에서 양호로 등급이 상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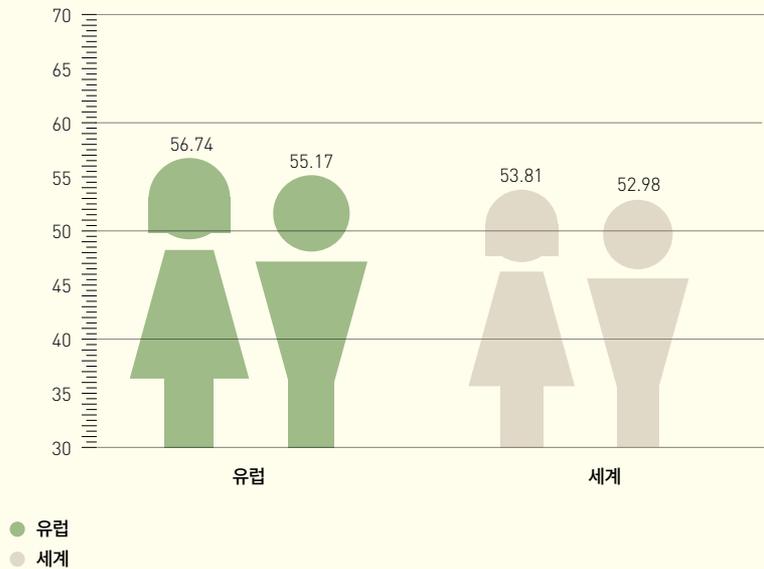
EF EPI 전년 대비 증감 추이



## 성별에 따른 차이

유럽의 성별 평균 점수는 남녀 모두 세계 평균 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유럽 여성이 여전히 남성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지만,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올해 유럽 여성의 점수는 작년보다 하락한 반면, 유럽 남성의 경우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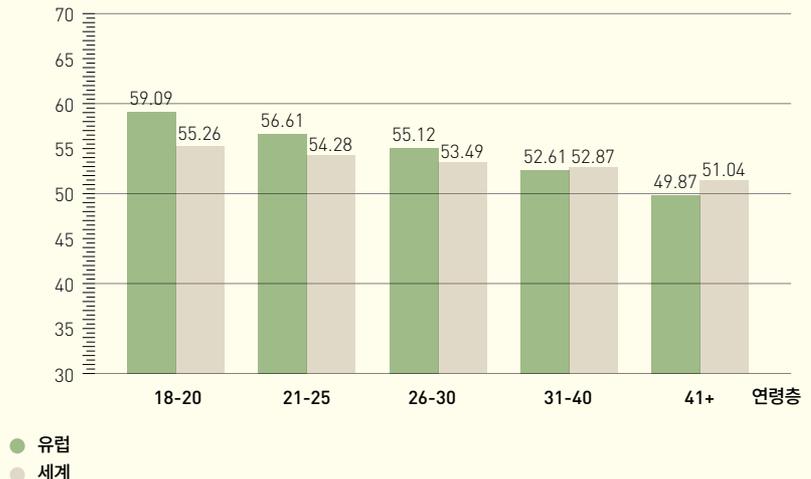
EF EPI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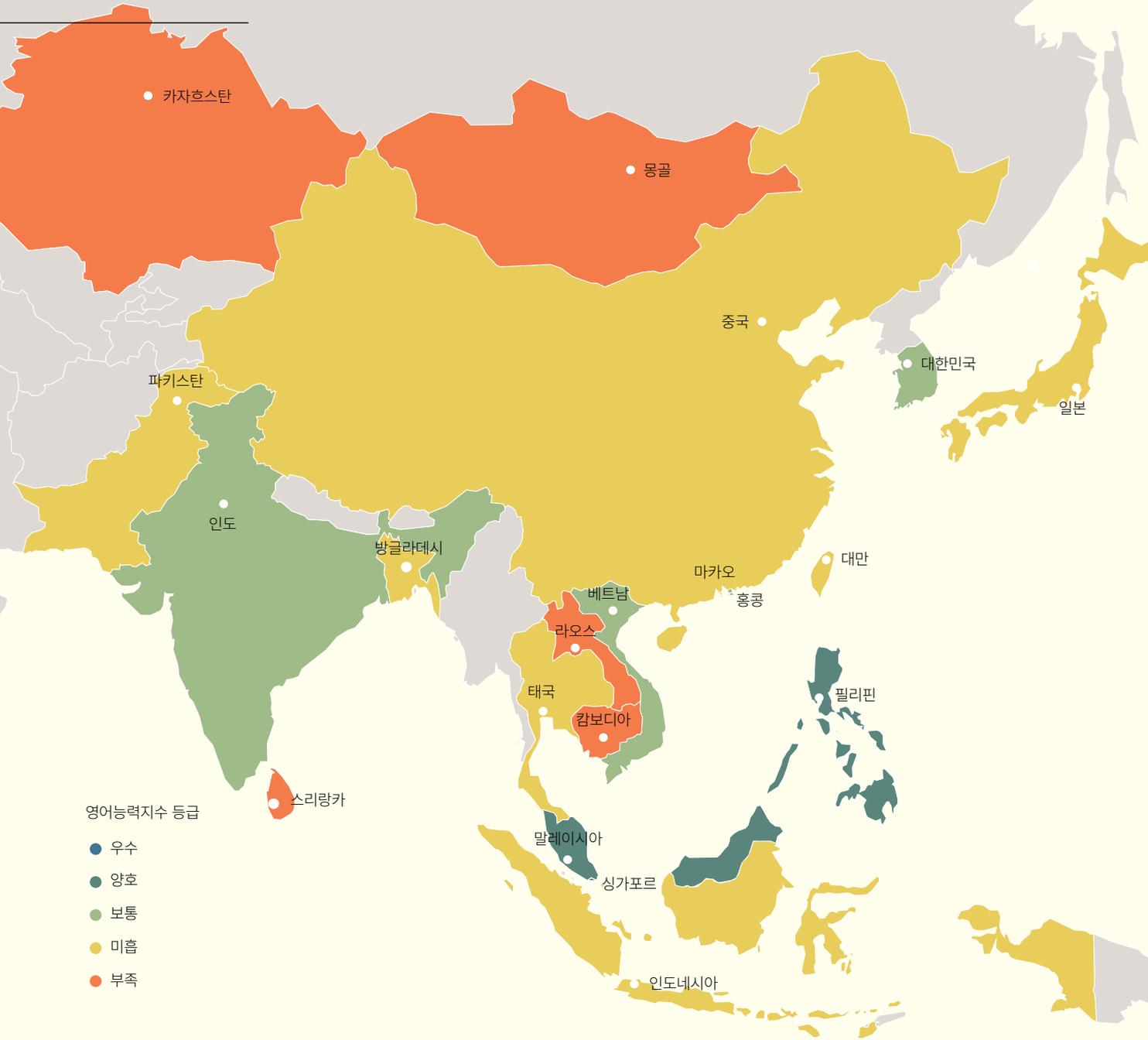
## 세대 간 차이

유럽 젊은 성인층은 지속적으로 세계 영어 능력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노년층은 평균 또는 평균보다 조금 낮습니다. 단, 대부분의 그룹이 작년보다 하락했으며, 21~25세 사이 성인들은 거의 2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EF EPI 점수



# 아시아



## EF EPI 순위

05	싱가포르	66.03	36	중국	52.45	53	태국	49.78
13	말레이시아	61.07	37	일본	52.34	61	스리랑카	47.84
15	필리핀	60.59	39	인도네시아	52.15	67	카자흐스탄	45.95
27	인도	56.12	40	대만	52.04	71	몽골	44.21
29	홍콩	55.81	42	마카오	51.87	77	캄보디아	40.86
30	대한민국	55.32	46	방글라데시	50.96	80	라오스	37.56
34	베트남	53.43	52	파키스탄	49.88			

## 대륙만큼 다양한 아시아의 영어

아시아의 평균 영어 능력은 세계 2위로, 유럽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시아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영어 능력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모두 올해 EPI 지표에서 상위 25% 이내의 순위를 기록했지만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하위 10%에 머무르는데 그쳤습니다. 이 사실은 즉, 연구 결과의 일부는 아시아 전역에 적용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경향과 제안 사항은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인구를 가진 아시아에서는 오직 일부 지역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역별 동향

아시아가 점점 경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국가간 인구 이동은 저조한 편입니다.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민자의 비율은 17%에 불과하며, 이들 대부분은 합법적인 거주 비자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에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이민자를 필요로 하는 반면, 인도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의 국가들은 노동 시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아시아 전역의 영어 능력 향상과 시급한 이민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아시아의 주요 경제국들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인력 이동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어권 국가들과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국가들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높은 영어 능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영국 식민지였던 아시아 국가들 중, 싱가포르가 아시아 국가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랭크 되어 있으며,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은 미흡 등급이고, 인도와 홍콩은 중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 국가 모두에서 교육 시스템과 사회 전반에 걸쳐 영어는 특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곧 속명은 아닙니다.

### 개선이 필요한 지역

OECD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대한민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의 교육 시스템이 모델로 주로 거론됩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학생들에게 높은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학생의 빈부격차와 성적에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네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만이 영어를 고급 수준까지 교육합니다.

영어를 배우는 데는 수학이나 과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암기력이나 정확성이 덜 강조됩니다. 대한민국, 일본, 홍콩에서 영어 교육은 실용적인 소통보다 문법적 규칙에 치중하는 잘못된 경향을 보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현실적인 영어 능력의 향상을 원한다면 완벽한 문법과 어휘력보다는 회화 연습과 소통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올해의 EF EPI에서 중국은 여전히 미흡 등급에 머물러 있으며 개선 정도는 작년에 비해 미미했습니다.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어에 능통한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큰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에는 제조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으며, 2013년 이래 서비스 부문이 중국 GDP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서비스 중심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영어 실력이 필수입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중국이 서서히 언어 교육에 있어 소통 중심의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인 사실입니다. 중국의 성인들은 매년 영어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1억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해외 여행을 위한 비자를 받았습니다.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태국 등 교육 시스템이 열악한 국가의 경우, 많은 분야에서 취약점을 드러냅니다. 이들 국가에서의 교육 개혁은 먼저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교사의 역량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정책

아시아 국가들은 영어 능력을 향상하는 데 관심을 보이며, 이를 위해 수많은 프로젝트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대적인 교사 재교육 정책부터 영어 원어민과의 접촉을 늘리는 등의 소규모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의 학부모들은 여전히 공교육의 영어 학습에 만족하지 못하며,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종종 영어 학원을 이용합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성인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독특하게도 유머를 사용한 대중 인식 캠페인을 후원합니다.

# 아시아의 영어 교육 정책

## 싱가포르

우수

EF EPI 점수: 66.03

80개 국가 중 5위

### 바른 영어 사용 운동

2000년에 싱가포르 고척통 총리가 바른 영어 사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싱가포르인들에게 이 지역의 변형된 싱글리시 대신 표준 영어를 쓰고 말하도록 장려하는 운동입니다. 바른 영어 사용 운동의 일환으로 연중 내내 관련 워크숍, 세미나, 대회, 프로그램 등이 운영됩니다. 그러나, 몇몇 지역 시민단체들은 싱가포르의 문화와 유산에 뚜렷이 기여해 온 싱글리시를 폄하하는 이러한 캠페인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 말레이시아

양호

EF EPI 점수: 61.07

80개 국가 중 13위

### 영어 교사의 전문성 향상

말레이시아 교육부가 주관하는 영어 교사의 전문성 향상 (Pro-ELT)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의 초등 및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영어 실력 및 교육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2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13개 주 전체에 걸쳐 15,000명 이상의 교원들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연수는 연중 내내 주당 6시간 분량의 강의 또는 한시적으로 4주간 집중 교육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홍콩

보통

EF EPI 점수: 55.81

80개 국가 중 29위

### 직장 영어 사용 캠페인

홍콩 정부는 2000년도에 직장 영어 사용 캠페인(WEC)를 도입하여 직장 내 영어 사용의 중요성을 환기시켰습니다. 이 캠페인은 다양한 표준 영어 시험을 통해 여러 직업군 종사자들의 영어 회화 및 쓰기 능력 표준을 정립하기 위한 홍콩 직장 영어 벤치마크(HKWEB)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WEC는 온라인과 라디오, TV 등에서 연간 공공 인식 캠페인을 방송했고, 성인들의 영어 구사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개방형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 일본

미흡

EF EPI 점수: 52.34

80개 국가 중 37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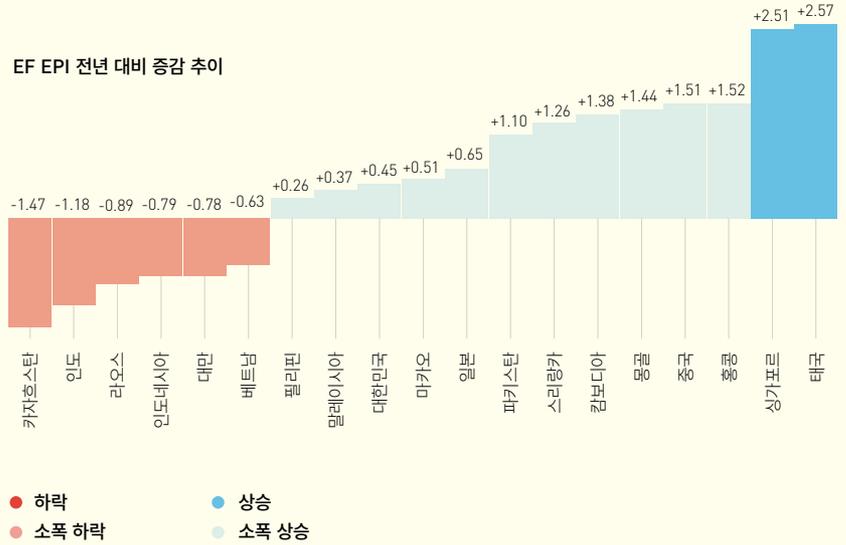
### 세계 일류 대학 프로젝트

세계 일류 대학 프로젝트는 일본 정부가 일본의 고등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관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30개 대학의 프로그램을 국제화시키기 위해 공공 기금을 지원합니다. 기금 일부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영어 수업을 늘리고 외국인 교수를 채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대학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일본 대학 수를 늘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6년까지 타임즈 고등교육(THE) 세계 대학 랭킹 100위 안에 든 일본 대학은 도쿄 대학(39위)과 교토 대학(91위) 둘 뿐입니다.

## EF EPI 추세

여러 아시아 국가들의 올해 EF EPI 점수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태국의 점수가 주목할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은 부족 등급에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향상되고 있으며, 반면 인도와 카자흐스탄은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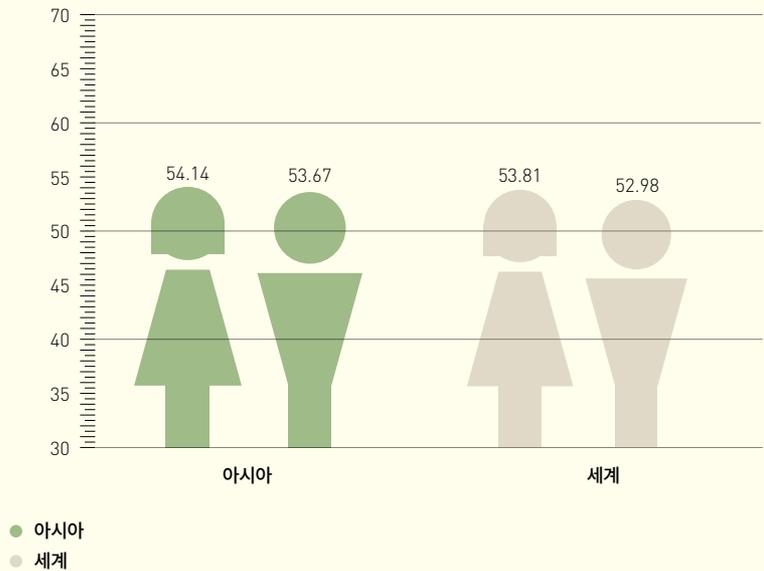
EF EPI 전년 대비 증감 추이



## 성별에 따른 차이

지난 몇 년간에 이어서 올해도 아시아 남성과 여성은 올해 EF EPI 세계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아시아 남성이 소폭 상승한 반면, 아시아 여성의 점수는 하락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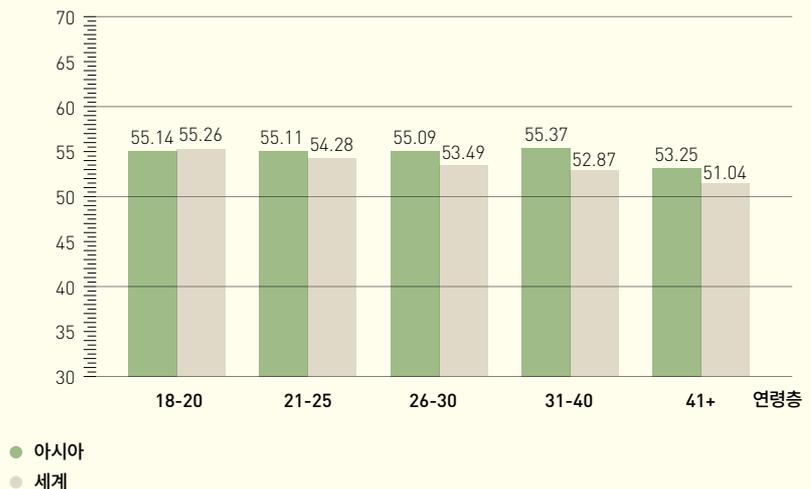
EF EPI 점수



## 세대 간 차이

놀랍게도 아시아에서는 연령에 따른 영어 능력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층이 장년층보다 확연히 우수한 영어 능력을 보이는 반면, 아시아는 40세까지 연령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결과와 더불어 전년 대비 아시아 평균 영어 능력이 향상되지 않은 현실을 종합해 보면, 이 지역의 학교 및 대학교에서의 영어 교육의 질이 향상되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EF EPI 점수



# 라틴아메리카



## 영어에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한 라틴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영어 능력 편차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영어 능력이 가장 높은 아르헨티나와 가장 낮은 엘살바도르 간의 점수차는 10점에 불과합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초등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지난 10년간 초등학교 과정에서 낙제 또는 자퇴하는 학생 수가 감소했습니다. 이 지역 내의 거의 모든 국가의 성인 90% 이상이 문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시점에서 GDP 대비 비율로는 유럽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성공과 함께, 미국과 캐나다와 밀접한 경제 및 사회적 연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의 영어 능력 수준은 여전히 세계 평균에 조금 못 미칩니다.

### 지역별 동향

일부 농촌 지역들이 여전히 교육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지만, 라틴아메리카가 가진 가장 큰 도전은 교육적 성과가 저조하다는 사실입니다. 유네스코 시험 결과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의 3학년 학생 중 50%가 수학의 기초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며 30%는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신 PISA 결과를 보면 중고등 학생들에게서도 유사한 양상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취약점은 교육 시스템 내에 영어 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역 전체적으로 교사들의 소득은 낮으며, 충분한 초기 연수 및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전문성 개발의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관련 연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할당 시간에 여유가 있는 기타 과목의 교사가 영어 교육을 맡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너무 많은 학생을 감당해야 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교대로 교육하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적고, 영어를 배우는 데 필요한 복습 및 실습을 진행할 여력이 없습니다.

### 개선이 필요한 부분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라틴 아메리카는 우선 교사들의 영어 능력을 정비해야 합니다. 교사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여 필요한 레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교육하는 방안은 좋은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자격을 갖춘 영어 교사를 채용하고, 영어 교사들에게 사전 교육을 제공하고, 영어 교육 커리큘럼을 표준화하는 것도 지역의 영어 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능력 위주의 진급, 정기적인 전문성 개발 기회, 보상 등의 방안을 통해 더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보다 탄탄한 학생 평가를 시행한다면 교육자들이 취약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영어 교사를 자원 봉사 형식으로 유치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큰 성과를 기대하거나 지속하기에는 어려운, 일시적

방편에 불과합니다. 여러 국가들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다 생산적인 대안으로는, 북미 지역으로 교사와 학생을 보내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교육법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환 프로그램은 자국 내에서 효율적으로 영어 교사를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참여하는 교사들에게는 빠른 실력 향상과 좋은 동기부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정책

라틴아메리카의 대다수 영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교사 연수와 북미와의 교환 학생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수에 중점을 두는 것은 이 지역에 영어에 능통한 교사 수의 부족에 따른 적절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혁신 정책도 계획 중에 있으며, 이 중에 한 프로그램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다른 나라의 교사가 고품질의 영어 교육을 제공하게 합니다. 이 정책은 큰 비용을 필요로 하는 해외 교사 교환 프로그램보다 예산 절감이 기대되는 뚜렷한 잠재력을 가진 대안입니다.

# 라틴아메리카의 영어 교육 정책

## 브라질

미흡

EF EPI 점수: 51.92

80개 국가 중 41위

### 국경 없는 언어

브라질 교육부는 2014년에 대학생들의 해외 유학을 돕기 위해 국경 없는 언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 정책에는 독일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7개국 언어가 포함되며, 일대일 대면 학습, 온라인 학습, 배치 교사, 영어 능력 시험 등을 통한 언어 학습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는 국경 없는 과학이 있는데, 2011년에서 2015년까지 10만 명의 과학 전공자에게 해외 대학원 학위 취득을 지원했습니다.

## 우루과이

미흡

EF EPI 점수: 51.73

80개 국가 중 43위

### 영어 세이발 계획

2012년도를 시작으로, 우루과이의 20개 학교에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이 미국,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 해외 교사로부터 원격 영어 수업을 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약 8만 7천명의 초등학생들이 원격 영어 수업을 받았습니다. 2015년에 실시된 자체 평가에 의하면 세이발 영어 수업을 받은 6학년 학생의 66%가 어휘력, 문법, 독해에서, 그리고 40%는 듣기 평가에서 A2 레벨을 받았으며, 이는 세이발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또래 학생들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 멕시코

미흡

EF EPI 점수: 51.57

80개 국가 중 44위

### 10만 명 프로젝트

2013년에 시작된 공공 장학 기금인 10만 명 프로젝트는 2018년까지 멕시코 학생 10만 명을 미국으로 보내 집중 단기 영어 과정을 받게 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멕시코에 5만 명의 학생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성공적인 교환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지만, 최근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일부 멕시코 대학은 10만 명 프로젝트 학자금 지원 대상 학생들을 캐나다로 보내고 있습니다.

## 파나마

미흡

EF EPI 점수: 50.68

80개 국가 중 49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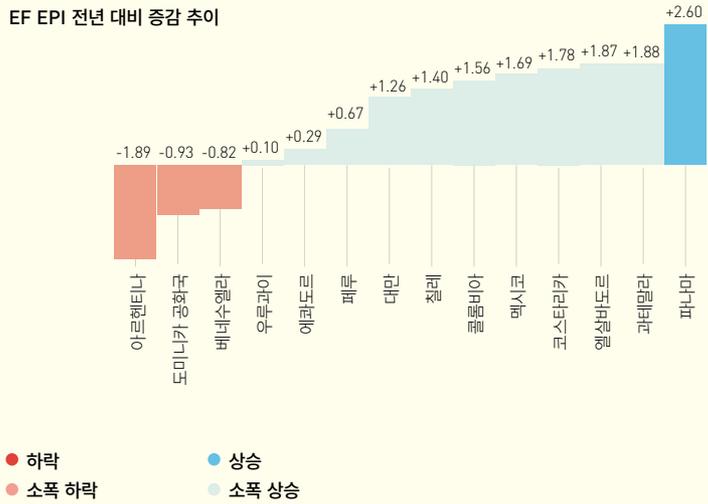
### 파나마 이중언어 프로그램

파나마 이중언어 프로그램은 2014년에 시작되었으며, 학생들에 대한 영어 강의 시간을 늘리고, 국내 및 해외 교사 연수 기회를 늘림으로써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은 연간 300시간의 방과후 영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예비 유치원생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은 평일 5~10시간의 영어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2016년까지 6천 2백 명의 교사, 13,800명의 중고등학교 학생, 26만 명의 유치원 및 초등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까지 교사 2만 명, 중고등학생 4만 5천 명, 유치원 및 초등학생 43만 3천 명까지 참여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EF EPI 추세

라틴아메리카 대다수 국가들의 영어 수준이 소폭 상승을 보였고, 과테말라, 콜롬비아, 파나마는 부족 등급에서 미흡 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비록 더디지만, 지속적인 영어 실력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양호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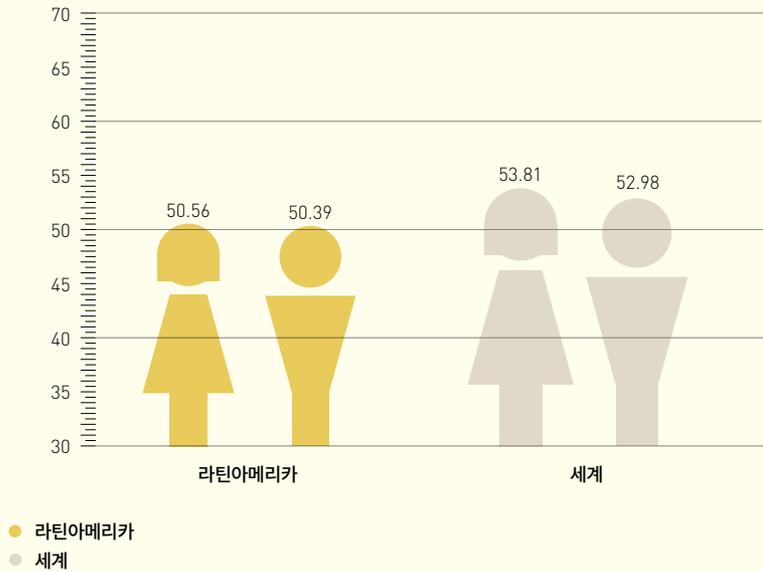
EF EPI 전년 대비 증감 추이



## 성별에 따른 차이

라틴아메리카의 남성과 여성 모두 세계 평균 점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지역과 달리 라틴아메리카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영어 실력은 유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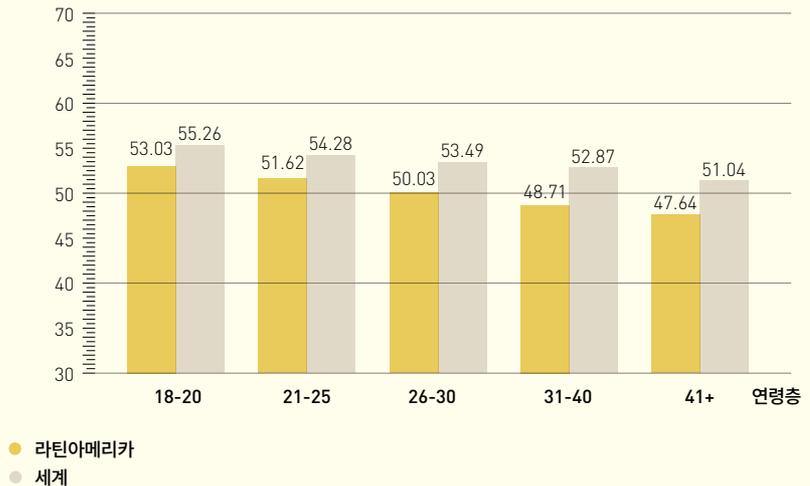
EF EPI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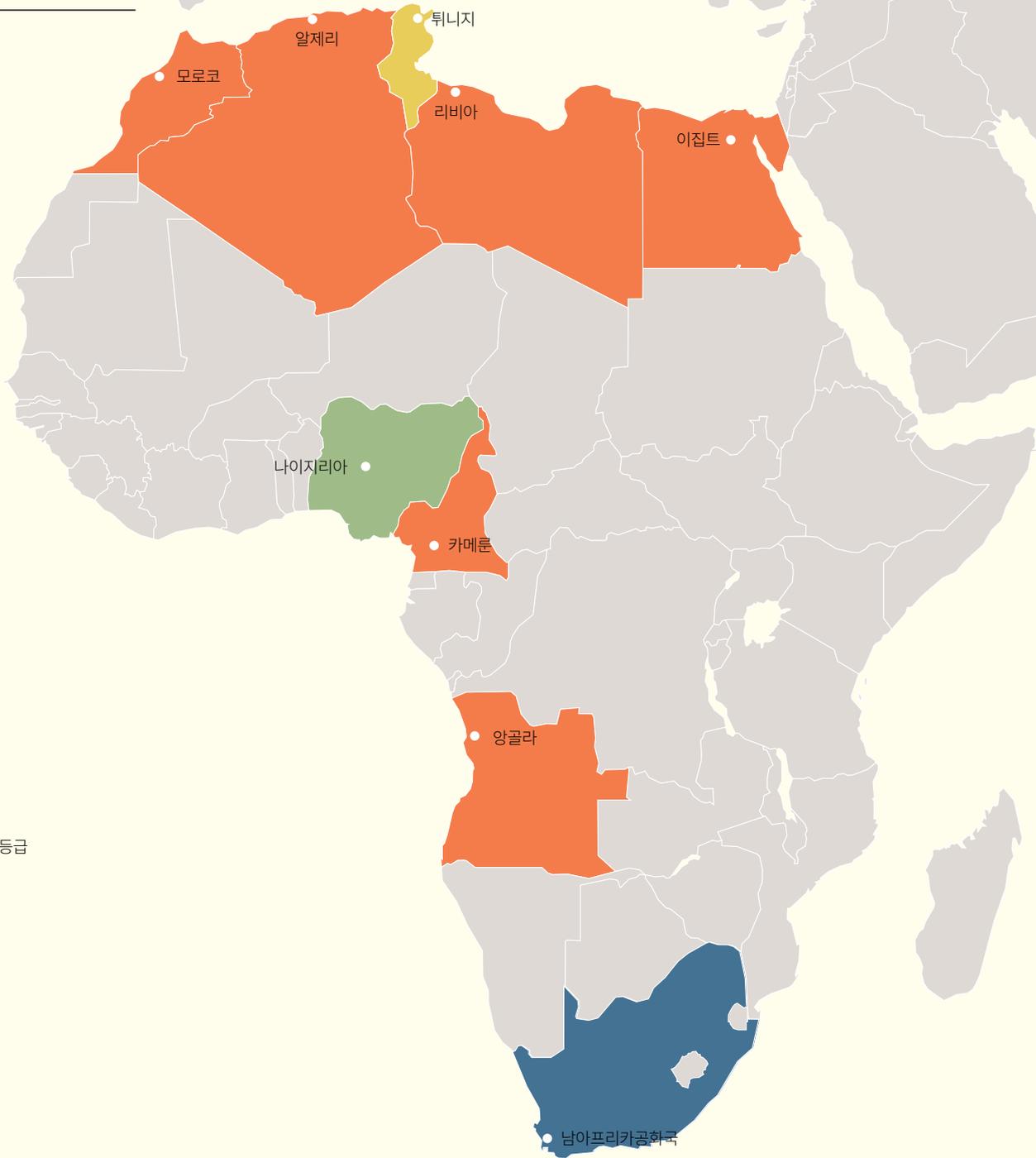
## 세대 간 차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연령별 영어 능력은 대부분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으며, 모든 연령에서 세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납니다. 라틴아메리카의 젊은 성인들은 다른 지역의 같은 연령에 비해서는 성적이 향상되었지만, 이 지역의 미래 영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상승 폭이 너무 작습니다.

EF EPI 점수



# 아프리카



##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EF EPI 순위

08	남아프리카공화국	63.37
31	나이지리아	54.74
56	튀니지	49.01
60	모로코	47.91
66	이집트	46.51

73	앙골라	43.49
75	카메룬	42.45
76	알제리	42.11
78	리비아	38.61

## 냉혹한 불평등의 현실이 투영된 아프리카의 영어 실력

아프리카 성인의 영어 능력은 평균적으로 낮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성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아프리카 인구는 50%가 15세 미만으로, 다른 대륙보다 연령이 낮은 편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높은 성인 문맹률을 보이며, 오랫동안 농촌 지역 학생과 도시 빈민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평생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국가가 영어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 지역별 동향

지난 20년간 아프리카 전역에서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시도들이 있었지만, 대륙의 많은 지역에서는 아직도 유치원 및 중고등 교육 과정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적절한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서도 학생들은 일자리 부족 및 교육과 직업 간의 연관성 결여로 인해 중고등 교육 과정을 마칠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제리와 튀니지의 남자아이 중 30% 이상이 중학교 과정을 마치기 전에 학교를 중퇴합니다. 이 두 나라에서는 여자 아이가 중학교 과정을 마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영어 능력의 성별 차이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아프리카에서 두드러지며, 여성이 남성을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교육 정책의 질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2015년 아프리카-미국 기관의 합동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아프리카 초등학교의 일부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 비해 기본 독해력과

수리력 시험 결과에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카메룬 같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는 교사의 결근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교에 출근을 하더라도, 교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학교에 원칙 없이 배치되는 일이 흔합니다. 2012년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초등학교에서 교사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42명이었습니다. 무려 70명 이상의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된 학급도 드물지 않습니다. 민간단체, NGO, 사회적 기업가들이 점차 아동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공립 학교에 대응하여 대안 학교를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포함된 아프리카 국가 중 3개국은 영어를 국가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영어가 유일한 공용어이며, 영어로 운영되는 공교육 시스템은 무료로 제공되지만 의무 교육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이지리아의 영어 능력이 보통 등급이라는 것은 다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는 수백 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나이지리아의 상황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UN 모니터링 학습자 평가(MLA) 28.6점으로 교육 시스템의 결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LA 28.6점은 시험 결과 28.6%만이 학습 내용을 이해했다는 뜻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기도 합니다. OECD 국가 학생의 평균은 80%인 것에 비해 북아프리카 국가 평균은 65% 정도입니다.

### 개선이 필요한 부분

아프리카인 네 명 중 세 명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영어 학습 자원과

영어 교육 자료를 접할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인프라 프로젝트, 규제 개혁 및 휴대폰의 보급이 진행됨에 따라 인터넷 사용이 확장되고 사람들이 영어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은 불확실한 고용 전망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우수한 인재들이 유럽과 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 고급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한 상태이며 그와 다른 분야에서는 대학 졸업자들의 실업률이 높습니다. 지역 내 기업들은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숙련된 노동자들의 부족을 지적합니다. 아프리카의 정책 입안자들은 대학과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을 향상시키고 대학 졸업자들에게 영어, 창업, 그리고 직무 능력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 정책

아프리카 국가들은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은 교사들의 재교육과 외국어로서의 영어 노출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비영어권 국가의 식민지로 관계를 지속하는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은 글로벌 언어로서의 영어의 중요성에 대해 단감한 편이며 따라서 커리큘럼의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영어를 인종과 언어 집단 간의 중요한 다리 역할로 여깁니다.

# 아프리카의 영어 교육 정책

## 남아프리카공화국

우수  
EF EPI 점수: 63.37  
80개 국가 중 8위

### 대학의 언어 정책

고등 교육에서의 어학적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반응하여 스텔렌보쉬와 프레토리아 대학은 2016년 6월에 새로운 언어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스텔렌보쉬 대학은 2017~2018년도 학기부터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아프리카언어에 이어 영어와 코사어를 대학 내 교육과 소통의 공식 언어로 채택했습니다. 프레토리아 대학의 새로운 정책은 영어를 주언어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대학의 이사회는 대학의 이런 변화가 보다 포용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나이지리아

보통  
EF EPI 점수: 54.74  
80개 국가 중 31위

### 스펠아프리카

스펠아프리카는 2013년에 설립된 사회적 기업으로, SMS 기반의 영어 어휘 증진 프로그램을 나이지리아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 이후 스펠아프리카는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교육 벤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업 확장을 통해 현재는 휴대폰을 매개로 한 다른 영어 학습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스펠아프리카는 스웨덴의 NGO 액션10과 제휴하여 백2스쿨(Back2School)이라는 이름의 성인 대상 일대일 영어 교습 및 문맹 퇴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 모로코

부족  
EF EPI 점수: 47.91  
80개 국가 중 60위

### 대학 입학 시험에서의 국제 영역

2014~2015년도 학기부터 모로코의 공립 고등학교 중 3개교에서 국제학과가 설립됐습니다. 국제학과에 소속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같이 프랑스어로 진행되는 커리큘럼을 따르지만, 영어나 스페인어로 추가 설명을 받거나 일부 교과과정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직 시험 단계이지만, 3년에 걸친 프로그램이 끝난 2017년에 첫번째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 앙골라

부족  
EF EPI 점수: 43.49  
80개 국가 중 7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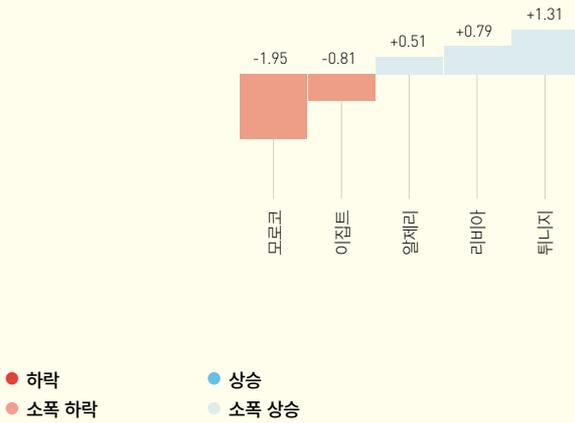
### 앙골라 영어 교육 협회(ANELTA) 교사 워크숍

2015년과 2016년에 앙골라 영어 교육 협회(ANELTA)와 앙골라 주재 미국 대사관, 그리고 앙골라 교육부 합작으로 17개 워크숍을 주최하고 수업 계획, 교실 관리, 어휘력 증진 등의 영어 교육 문제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워크숍에는 약 1,000명의 교사가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 ANELTA는 15개 지역으로 확장됐으며 교사들의 일상적 업무 지원을 위해 지역 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

## EF EPI 추세

아프리카 국가들의 영어 능력은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모로코의 경우 전년 대비 2점이 하락으로 인해 부족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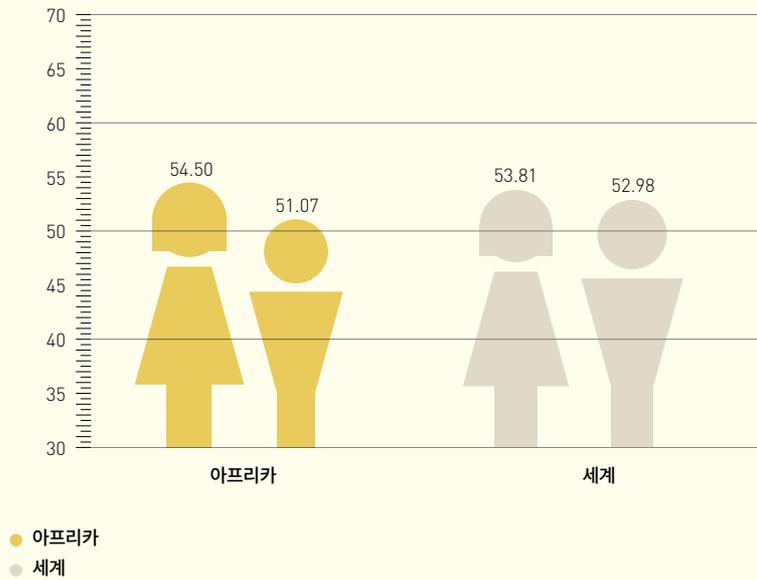
## EF EPI 전년 대비 증감 추이



## 성별에 따른 차이

아프리카 여성은 남성보다 중퇴율이 더 낮았으며 그에 따라 남성보다 3점 이상 앞서, 아프리카 지역이 성별에 따른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여성은 세계 평균보다 조금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했고, 남성은 조금 낮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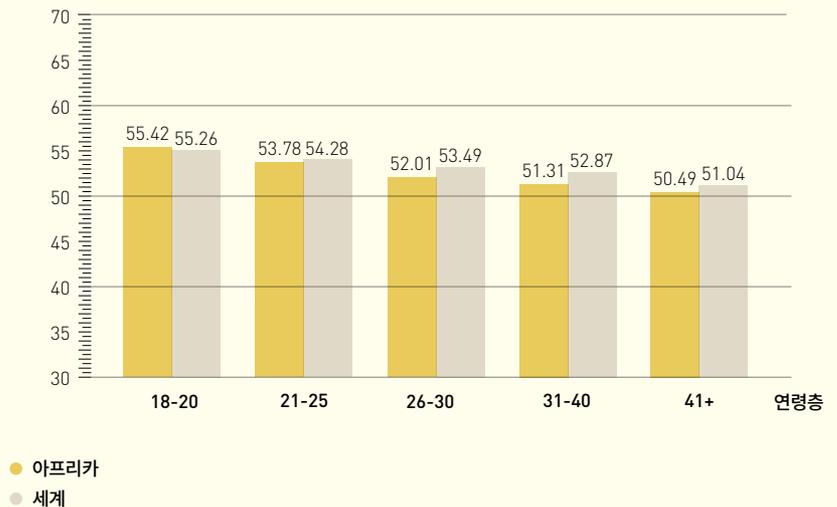
## EF EPI 점수



## 세대 간 차이

아프리카의 연령별 세대 점수는 세계 평균과 유사하거나 다소 낮습니다. 지역의 미래에 희망적일 수 있는 부분으로, 18~20세의 젊은 성인들은 같은 연령대 대비 세계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 EF EPI 점수



# 중동

##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EF EPI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7 아랍에미리트 48.88</li> <li>58 시리아 48.49</li> <li>59 카타르 48.19</li> <li>63 요르단 47.40</li> <li>65 이란 46.6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0 오만 44.48</li> <li>72 사우디아라비아 43.98</li> <li>74 쿠웨이트 43.14</li> <li>79 이라크 38.12</li> </ul>
--	--

## 낮은 영어 실력으로 피해를 보는 중동의 무역

중동은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 안정적인 체제와 분쟁 지역이 불균형적으로 공존하지만, 놀랍게도 영어 능력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대부분의 나라에서 영어 능력은 작년 대비 소폭 상승했고,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전체적으로 영어가 학술적 또는 전문적 용도로 사용되기에는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중동 지역은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국제 무역을 통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곳으로서, 영어 능력의 부족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 지역별 동향

중동 지역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은 놀라울 정도로 연령이 낮습니다. 지역 전체로 볼 때, 인구의 약 38%가 18세 미만입니다. 젊은 남성의 20~30%, 젊은 여성의 경우는 남성의 두 배 정도로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젊은이들이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은 공공부문입니다. 이 직종의 소득이 가장 높고 가장 안정적이지만 일자리의 절대 수가 너무 적어 점차 증가하는 대학 졸업생들을 다 소화할 수 없습니다. 예상대로, 이 지역은 계속 증가하는 높은 교육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긴장을 유발했습니다.

사회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은 이민으로, 중동 전체에서 유럽과 북미로 빠져 나가는 우수한 인재의 비중은 매우 높으며 가장 전문적인 인력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일부 기업이 정신을 가진 청년들은 모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으려 시도해 보지만, 낮은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 국가간 높은 관세, 그리고 변동 폭이 큰 환율로 인해 창업하는 문화가 크게 대두되지는 못했습니다.

### 개선이 필요한 부분

중동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과도할 정도의 분쟁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런 분쟁으로 인해 어린이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조차 제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육마저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영어 능력을 토론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지역 내 다소 안정된 국가의 경우는, 학교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부터 외국어 수업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교육 방법을 현대화하고, 모든 교사들에게 높은 품질의 영어 교육을 실시한다면 해당 국가의 영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걸프만 주변국의 교육 기술에 대한 많은 투자금은 학술 콘텐츠 및 교사 연수에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학교에서 새로운 기술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이들 지역 중 일부는 외국인 영어 교사에게 크게 의존합니다. 이는 자격을 갖춘 강사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양질의 자국 교사 연수 시스템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 차원에서, 일부 중동 국가는 아랍 및 비 아랍권 국가에서 다국적 교직원과 학생들을 모집하여 해외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교류에 대한 개방성은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지만, 교육기관에서 국내 영어 교사를 양성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더 큰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정책

중동 지역의 정부는 현대화를 목표로 하는 더 큰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교육 시스템의 일부에 대한 우회책으로 영어 교육 정책을 끼워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걸프만 주변의 부유한 국가들은 주로 기술과 해외 유학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 석유 가격의 변동이 이런 고비용 프로그램의 운영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중동의 영어 교육 정책

## 아랍에미리트

미흡

EF EPI 점수: 48.88

80개 국가 중 57위

### 모하메드 빈 라시드의 스마트 학습 계획

2012년 아랍에미리트는 교실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새로운 스마트 학습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실행되면 공립 학교는 "스마트 교실"을 도입하게 되고, 학생들은 4G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을 통해 온라인 영어 및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혜택을 누리게 된 학생 인구는 2015년까지 208개 학교 3만 4천 명에 달했고, 1,375개 스마트 스크린과 5,295개의 노트북이 교사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지도자들은 교사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고, 온라인 교육 자료에 대한 투자가 미미하여 이런 신기술의 교육적 가치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카타르

부족

EF EPI 점수: 48.19

80개 국가 중 59위

### 카타르 국가 전자 학습 포털

카타르 교통통신부는 세계화에 집중하는 사회로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카타르 국가 비전 2030을 이루기 위해 2016년 카타르 국가 전자 학습 포털을 런칭했습니다. 이 포털은 성인에게 가상의 양방향 상호 작용 프로그램과 자율 학습을 통해 다양한 기술을 교육합니다. 카타르는 이 포털을 사용하여 2019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및 2022년 FIFA 월드컵에 필요한 인력들을 영어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부족

EF EPI 점수: 43.98

80개 국가 중 72위

### 압둘라 국왕 장학금 프로그램

2005년, 압둘라 국왕은 사우디 자국민의 유학을 후원하기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압둘라 국왕 장학금 프로그램(KASP)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학과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4개월 간의 영어 연수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비, 항공료, 의료 보험 및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10년에 걸쳐 KASP는 사우디 내 전체 학생의 90%를 대상으로 해외 학부 및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프로그램 도입 이후 KASP가 후원한 학생은 수십만 명에 이르렀지만, 석유 가격의 하락으로 사우디 정부는 프로그램의 범위를 축소해야 했으며, 영어권 국가로 진출한 사우디 학생 및 대학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쿠웨이트

부족

EF EPI 점수: 43.14

80개 국가 중 7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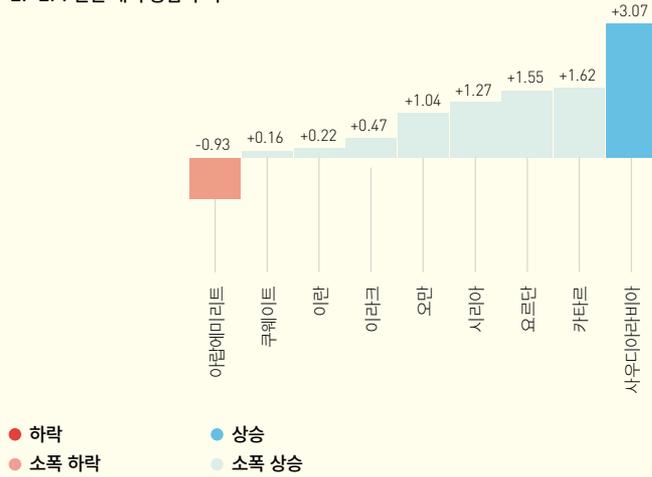
### 영어 교육과정 정책과

쿠웨이트 교육부의 영어 교육(ELT) 교육과정 정책과에서는 국가 커리큘럼 표준 설정에서 교재 준비 및 평가법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영어 교육을 담당하며 교육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교육과정 정책과 웹사이트에서는 학생 및 교사들을 위해 교육 자원은 물론이고, 피드백도 제공합니다. 교육부 정책에 따르면 학생들은 12년 간의 영어 수업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립 학교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비교적 부족한 편입니다. 2010년 연구 자료에 의하면 교사들의 준비 능력과 전문성의 부족이 그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 EF EPI 추세

사우디아라비아의 영어 능력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의 영어 능력은 대부분 부족 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랍에미르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영어 능력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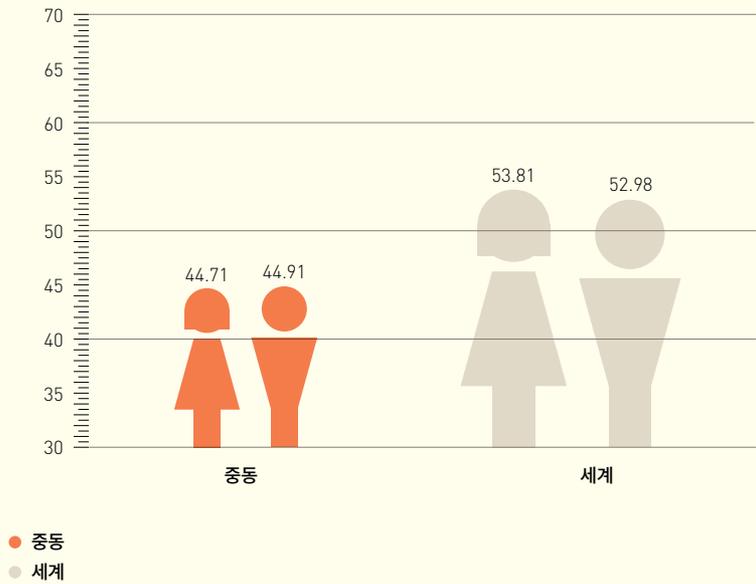
EF EPI 전년 대비 증감 추이



## 성별에 따른 차이

중동 지역의 남성과 여성의 영어 능력은 세계 평균보다 10점 정도 낮습니다. 라틴아메리카와 같이, 성별에 따른 격차는 통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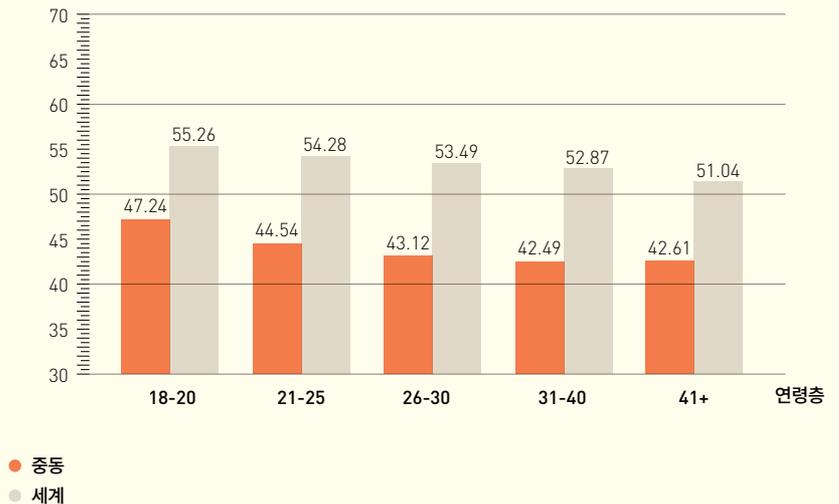
EF EPI 점수



## 세대 간 차이

중동 지역 연령별 그룹의 영어 능력은 여전히 세계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젊은 성인 그룹의 영어 능력이 다른 연령 그룹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전 세계의 다른 지역과 경쟁을 위해서는 모든 연령 그룹의 영어 능력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EF EPI 점수



# 결론

세계의 많은 국가는 자국민의 영어 능력의 향상을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완전히 습득하기에는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으며, 어디에나 적용되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학습법은 없습니다. 국가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시도해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리포트에 20개국의 영어 교육 정책을 담았습니다.

학생부터 직장인, 은퇴자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기 때문에 일반화된 단 하나의 영어 학습법을 고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다양한 그룹의 필요와 제약 사항에 따라 각각 다른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정책이 되려면, 이 여정의 다양한 단계에서 사람들을 지원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감안할 때, 지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은 비영리 단체, 고등 교육 기관,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a) 각 그룹의 구체적인 필요를 파악한 후, (b) 현실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c)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느 나라도 이러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즉,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리포트에 수록된 20개국의 영어 교육 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집단의 취약한 영어 실력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교육의 주언어로서의 영어(EMI):** 많은 사립 학교에서 교과 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영어로 교육(EMI)하고 있는 와중에, 몇몇 비영어권

국가에서 EMI를 공교육 시스템에 도입하여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과 파나마는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모로코는 영어를 사용하는 고등학교 수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영어를 교육의 주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통해서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커리큘럼 개선과 표준화된 평가 방법:**

각 국가는 치열한 글로벌 비즈니스 시장에서 자국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추길 원하므로, 외국어 교과 과정과 평가 방법을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독일과 쿠웨이트는 교과 과정 표준과 표준 평가 방법을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한 국가 기관을 창설했습니다. 학생들이 국제적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고등 교육의 국제화:** 더 많은 해외 학생과 교수들을 자국으로 유도하고, 국제 순위에서 보다 높은 랭킹을 기록하기 위해 세계 각 대학들은 더 많은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교수들에게 더 많은 영어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일본은 모두 대학에서 영어 사용을 촉진하는 국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다른 나라들도 많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 **대학생들의 유학 장학금 지원:** 영어 교육에서 가장 선호되는 투자 방법 중 하나는 해외로 유학을 가는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교육 정책 개혁보다 정치적 갈등이 덜 발생합니다. 또한 실행하기 쉬우며,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헝가리는 상당한 규모의 장학금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는 유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사전 외국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 **성인에 대한 교육:** 성인 직장인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놀라울 정도로 소수입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성인들 스스로 영어 실력 향상에 대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도 자체적으로 영어 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며,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외국어 강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교육:** 우루과이는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제공했으며, 아랍에미리트는 모든 학생들에게 4G로 연결 되는 태블릿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기기로 영어를 포함한 여러 과목에 대해 개별적인 지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교사들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루과이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영어권 국가 선생님들이 자국의 초등학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는 영어 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SM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의 온라인 교육 포털과 같은 프로그램은 성인 학습자들이 직업 교육을 영어로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영어 교육은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현지의 영어 교사 양성:** 모든 교육 시스템의 핵심은 교사입니다. 학교 영어 교육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들의 재교육과 초기 연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에는 말레이시아의 영어 교사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앙골라의 교육 협회가 주도 하는 지역 워크숍 같이 잘 짜여진 전국적인 프로그램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영어 교사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속적인 전문가 지원, 실용 교육, 적절한 시설 및 자료가 필요하며, 교사라는 중요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어 능력이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모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전 세계 성인 영어능력지수에 관한 데이터와 분석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전 세계 영어 교육의 미래에 대한 논의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식**

EF 영어능력지수(EF English Proficiency Index)는 언론인, 교육자, 관료, 기업인들에게 공신력 있는 데이터 자료로서 계속해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EF는 영어 교육과 관련된 세계적인 논의에 지속적으로 공헌하고 있다는 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EF EPI 제7판은 2016년 세 가지 서로 다른 버전의 EF Standard English Test(EF SET)를 치른 백만 명 이상 응시자들의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F 표준 영어 시험**

EF SET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난이도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영어 읽기와 쓰기 시험입니다. 또한, 응시자의 언어 능력 평가 결과가 유럽 언어 공통 기준(CEFR)의 6레벨로 분류되도록 설계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평가 체계의 시험입니다. EF SET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efset.org/research](http://www.efset.org/researc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F EPI는 세 가지 버전의 EF SET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그중 두 가지 버전의 시험은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EF 과정 등록 시 온라인에서 보는 레벨 테스트입니다. EF SET 시험을 마친 48,200명의 응시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일되고 일관적인 채점 방식을 수립했습니다.

EF EPI 2017년 국가별 점수는 TOEFL iBT 2016년 국가별 점수( $r = 0.82$ ) 및 IELTS Academic Test 2015년 국가별 점수( $r = 0.71$ )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시험이 설계 방식이나 응시자 프로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영어 능력의 동향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응시자**

비록 응시자들의 대다수가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 치중되어 있지만, EF EPI는 균형 있는 성비와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들의 영어능력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전체 표본의 47.8%는 여성 응시자
- 성인 응시자의 평균 연령은 26세
- 전체 응시자의 79%는 35세 미만, 99%는 60세 미만
- 남성과 여성의 평균 연령은 유사함
- 응시자는 영어 학습에 관심이 있어 시험에 응시하기 때문에 표본은 대부분은 취업이 가능한 성인으로 학생이나 경력 초기의 사람이 많습니다.

영어능력지수에 포함되려면, 한 국가 내의 응시자 수가 최소 400명이어야 합니다. 대부분 국가의 경우 응시자 수가 400명을 훨씬 웃돌았으며, 총 80개국이 포함되었습니다.

**표본 편차**

본 지수의 시험 응시자는 자발적으로 시험에 응시했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표본 집단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거나 자신의 현재 영어 실력이 궁금한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인구보다 영어 실력이 낮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결과가 자격증이나 프로그램 수강 허가 등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응시자가 부정 행위를 통해 일부러 성적을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실제 영어 실력 현황을 파악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시험은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응시자는 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학업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젊은 성인입니다.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지역의 사람들은 자동으로 제외되었습니다. 그 영향은 인터넷 사용률이 낮은 국가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표본 편차로 인해 빈곤하고 교육을 덜 받은 소외 계층이 제외됨으로써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료 온라인 시험은 전 세계 영어 능력 수준에 대한 대규모 자료를 수집하는 데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점수 산정**

EF EPI 점수 산정을 위해 각 시험의 전체 문항 수에 따라 시험 점수를 표준화하여

백분율로 산출했습니다. 모든 점수는 3가지 시험의 평균으로 산정하여 각 시험에 동등한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지역 및 세계 평균은 각 지역에 있는 국가의 인구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본 시험 점수에 따라 국가별 영어 등급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등급을 통해 영어 실력이 비슷한 국가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대륙 내의 국가 및 대륙 간의 등급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본 등급은 유럽 언어 공통 기준(CEFR) 및 EF 프로그램 등급과 일치합니다.

- '우수' 등급은 CEFR의 B2 레벨에 해당합니다.
- '양호', '보통', '미흡' 등급은 CEFR B1 레벨에 해당하며, EF 프로그램 등급과도 동일합니다.
- '부족' 등급은 CEFR의 A2 레벨에 해당합니다.

각 등급에 속하는 영어 사용자의 능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42~43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료 출처

EF EPI 는 유로모니터나 갤럽 같은 여론 조사 기관이나 OECD의 역량 조사인 PISA나 PIAAC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성됩니다. 이런 연구에서는 조사 표본을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수입 및 기타 요인들을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이와 같은 표본은 보통 국가당 몇천 명

정도로 작지만 복잡한 표본 선택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영어 능력에 관한 다른 자료는 국내 교육 체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는 표준화된 국내 평가 도구를 통해 모든 고등학생의 영어 능력을 평가합니다. 시험 결과는 공개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교육자와 정부 관계자는 자료를 이용해 교육 체계 개편 결과를 확인하고 어디를 개선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사용하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국내 평가는 각국 간에 호환이 불가능하며 성인을 평가한 것이 아니므로 한 국가 내의 고등학생 영어 수준을 평가하는 데에는 적합하지만 국가 간 성적을 비교하거나 성인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F EPI는 국내 평가 결과 및 언어와 관련된 여론 조사 혹은 기타 자료와 경쟁하거나 반박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 자료는 서로를 보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몇 자료는 세밀하지만 특정 연령대, 국가, 응시자에 제한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 EF EPI는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통해 전 세계 생산 가능 연령 성인들의 영어 능력을 평가한 폭넓은 자료입니다. EF EPI 와 견줄만한 크기와 범위를 가진 자료는 없으며, 자료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정책 입안자들, 학자, 분석가들과 함께 영어 교육 논의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관련 EF EPI 리포트

EF EPI 리포트는 총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인 영어 능력을 다루는 본 EF EPI 리포트, 직장인의 영어 능력을 평가한 기업용 리포트(EF EPI-c), 전 세계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영어 능력을 다루는 학생용 리포트(EF EPI-s)입니다. 올해는 EF EPI 제7판과 EF EPI-s 제2판이 발행되었습니다. EF EPI-c 제3판은 2016년에 발행되었습니다. 모든 리포트는 [www.ef.co.kr/epi](http://www.ef.co.kr/epi)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F EDUCATION FIRST에 대하여

EF Education First([www.ef.co.kr](http://www.ef.co.kr))는 언어, 학문 및 문화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교육 기업입니다. 1965년에 설립된 EF의 미션은 "교육을 통해 세계를 연다"입니다. 전 세계 54여 개 국가에 500개에 이르는 학교와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EF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교육서비스 공식 제공사업입니다. EF 영어능력 지수는 EF Education First의 리서치 이노베이션 담당 부서인 EF Learning Labs가 발표합니다.

# EF EPI 영어능력지수 등급

## EF EPI 영어능력지수 등급에 관하여

EF 영어능력지수를 활용하면 영어 능력이 비슷한 국가를 쉽게 파악하고 각 지역 및 지역 내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영어 사용 수준'은 해당 등급에 포함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범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국가는 각 등급별로 상위 3개국을 표시하였으며, EF EPI 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가 및 지역에서만 조사하였습니다.

EF 영어능력지수는 조사 대상 국가 및 지역을 '우수'부터 '부족'까지 5 단계 등급으로 구분 하였습니다. 영어능력지수 등급을 통해 어느 국가의 영어 능력이 비슷한지 파악할 수 있고 각 지역 및 지역 내 격차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도표에서는 등급별 영어 구사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들이 모든 측면을 포괄하지는 않지만, 등급별 영어 능력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어능력지수는 평균적인 수치일 뿐입니다. 국가 및 지역별 영어 능력을 비교하는 수치가 되기 때문에 개인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등급	국가	등급별 영어 사용 수준
우수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에 적절한 말투와 언어 구사하기</li> <li>✓ 수준 높은 문장을 쉽게 읽기</li> <li>✓ 원어민 영어 사용자와 계약 내용 협상하기</li> </ul>
양호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에서 발표하기</li> <li>✓ TV 프로그램 이해하기</li> <li>✓ 신문 읽기</li> </ul>
보통	불가리아 그리스 리투아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회의에 참여하기</li> <li>✓ 노래 가사 이해하기</li> <li>✓ 익숙한 주제에 대해 전문적인 이메일 작성하기</li> </ul>
미흡	중국 일본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권 국가에서 여행하기</li> <li>✓ 직장 동료들과 얘기 나누기</li> <li>✓ 직장 동료의 짧은 이메일 이해하기</li> </ul>
부족	시리아 카타르 모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단히 자기소개하기 (이름, 나이, 국적 등)</li> <li>✓ 간단한 표지판 이해하기</li> <li>✓ 외국인에게 길 안내하기</li> </ul>

고급 영어 사용자	C2	읽고 듣는 모든 내용을 쉽게 이해한다. 다양한 곳에서 읽고 들은 정보를 요약하거나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일관성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다. 미리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복잡하고 미묘한 의미의 차이도 구별하여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다.
	C1	길고 어려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고 함축적인 표현도 이해할 수 있다. 표현에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을 나타낼 수 있으며 상황에 맞춰 사회적, 문학적, 전문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복잡한 주제에도 적절한 언어 패턴, 접속어, 연결어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중급 영어 사용자	B2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논의를 포함하여,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주제에 관련한 복잡한 지문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꽤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막힘 없이 원어민과 대화를 할 수 있다. 다양한 주제에 관해 명확하고 자세한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며, 특정 주제에 관한 견해도 다양한 장단점을 열거하며 설명할 수 있다.
	B1	직장, 학교, 여가 생활 등에서 자주 접하는 익숙한 주제의 핵심을 이해한다. 여행 중일 때 일어나는 대부분의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익숙하거나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주제에 관련된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경험, 사건, 꿈, 희망, 의견, 계획 등을 묘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이나 계획에 대한 이유와 설명을 간단하게 덧붙일 수 있다.
초급 영어 사용자	A2	자신과 가장 밀접한 주제(아주 기본적인 개인 및 가족에 대한 정보, 쇼핑, 지역 지리, 직업 등)에 관한 문장과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이해한다. 잘 알고 있거나 자주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간단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 간단한 문장으로 개인 신상, 현재 상황, 사건, 급히 필요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다.
	A1	구체적인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문구와 매일 사용되는 일상적인 표현을 이해한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 있고 사는 장소, 아는 사람, 소지품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답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해를 돕기 위해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준다면 간단한 소통을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은 유럽평의회에서 인용하였습니다.

EF EPI에 포함된 국가는 모두 A2에서 B2 등급 내에 위치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영어 능력 변화:

다음의 EF EPI 점수 변화는  
각 국가별 EF EPI 제6판과 제7판  
사이의 점수 변화입니다.

전년 대비 2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해당 국가의 영어 능력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EF EPI 제6판에 사용된 자료는  
2015년에 수집한 자료이며,  
제7판에 사용된 자료는 2016년에  
수집한 자료입니다.

국가	EF EPI 제6판	EF EPI 제7판	전년 대비 증감 추이
과테말라	47.64	49.52	+1.88
그리스	-	57.14	new
나이지리아	-	54.74	new
남아프리카공화국	-	63.37	new
네덜란드	72.16	71.45	-0.71
노르웨이	68.54	67.77	-0.77
대만	52.82	52.04	-0.78
대한민국	54.87	55.32	+0.45
덴마크	71.15	69.93	-1.22
도미니카공화국	57.24	56.31	-0.93
독일	61.58	62.35	+0.77
라오스	38.45	37.56	-0.89
러시아	52.32	52.19	-0.13
루마니아	58.14	59.13	+0.99
룩셈부르크	63.20	64.57	+1.37
리비아	37.82	38.61	+0.79
리투아니아	55.08*	57.08	+2.00
마카오	51.36	51.87	+0.51
말레이시아	60.70	61.07	+0.37
멕시코	49.88	51.57	+1.69
모로코	49.86	47.91	-1.95
몽골	42.77	44.21	+1.44
방글라데시	-	50.96	new
베네수엘라	46.53	45.71	-0.82
베트남	54.06	53.43	-0.63
벨기에	60.90	61.58	+0.68
불가리아	56.79	57.34	+0.55
브라질	50.66	51.92	+1.26
사우디아라비아	40.91	43.98	+3.07
세르비아	59.07	59.37	+0.30
스리랑카	46.58	47.84	+1.26
스웨덴	70.81	70.40	-0.41
스위스	60.17	60.95	+0.78
스페인	56.66	56.06	-0.60
슬로바키아	57.34	57.63	+0.29
시리아	47.22*	48.49	+1.27
싱가포르	63.52	66.03	+2.51
아랍에미리트	49.81	48.88	-0.93
아르헨티나	58.40	56.51	-1.89
아제르바이잔	46.90	46.97	+0.07

국가	EF EPI 제6판	EF EPI 제7판	전년 대비 증감 추이
알제리	41.60	42.11	+0.51
앙골라	-	43.49	new
에콰도르	49.13	49.42	+0.29
엘살바도르	43.83	45.70	+1.87
오만	43.44	44.48	+1.04
오스트리아	62.13	62.18	+0.05
요르단	45.85	47.40	+1.55
우르과이	51.63	51.73	+0.10
우크라이나	50.62	50.91	+0.29
이라크	37.65	38.12	+0.47
이란	46.38	46.60	+0.22
이집트	47.32	46.51	-0.81
이탈리아	54.63	54.19	-0.44
인도	57.30	56.12	-1.18
인도네시아	52.94	52.15	-0.79
일본	51.69	52.34	+0.65
중국	50.94	52.45	+1.51
체코	59.09	57.87	-1.22
칠레	50.10	51.50	+1.40
카메룬	-	42.45	new
카자흐스탄	47.42	45.95	-1.47
카타르	46.57	48.19	+1.62
캄보디아	39.48	40.86	+1.38
코스타리카	51.35	53.13	+1.78
콜롬비아	48.41	49.97	+1.56
쿠바	-	50.83	new
쿠웨이트	42.98	43.14	+0.16
태국	47.21	49.78	+2.57
터키	47.89	47.79	-0.10
튀니지	47.70	49.01	+1.31
파나마	48.08	50.68	+2.60
파키스탄	48.78	49.88	+1.10
페루	49.83	50.50	+0.67
포르투갈	59.68	58.76	-0.92
폴란드	61.49	62.07	+0.58
프랑스	54.33	54.39	+0.06
핀란드	66.61	65.83	-0.78
필리핀	60.33	60.59	+0.26
헝가리	58.72	58.61	-0.11
홍콩	54.29	55.81	+1.52

\* 이 나라는 EF EPI 제6판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점수는 이전 EF EPI들을 참고한 자료입니다.

Africa-America Institute. (2015). State of Education in Africa Report 2015. Retrieved from <http://www.aalionline.org/wp-content/uploads/2015/09/AAI-SOE-report-2015-final.pdf>

Arbaoui, L. (2014). After French and Spanish, Morocco to introduce English baccalaureate. Morocco World News. Retrieved from <https://www.morocoworldnews.com/2014/07/133950/after-french-and-spanish-morocco-to-introduce-english-baccalaureate/>

British Council. (2014). Ceibal en Inglés. Retrieved from <https://www.britishcouncil uy/en/programmes/education/ceibal-en-ingle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17). The World Factbook. Retrieved from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Council of Europe. (2017). Language Education Policy Profiles. Retrieved from [http://www.coe.int/t/dg4/linguistic/Profils1\\_EN.asp](http://www.coe.int/t/dg4/linguistic/Profils1_EN.asp)

Council of Europe. (2001).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Cambridge, U.K: Press Syndicat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The Economist. (2016). Youth unemployment in the Arab world. Retrieved from <http://www.economist.com/blogs/graphicdetail/2016/08/daily-chart-7>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6). Retrieved from <http://www.euromonitor.com/income-and-expenditure>

European Commission/EACEA/Eurydice Facts and Figures. (2015). National Sheets on Education Budgets in Europe 2015.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Holland, P. (2016). Why is Argentina suffering from StagLearning? The World Bank Group. Retrieved from <http://blogs.worldbank.org/education/why-argentina-suffering-staglearning>

Kottasova, I. (2016). Saudi Arabia cuts funding for students abroad. CNN Money. Retrieved from <http://money.cnn.com/2016/02/09/news/saudi-arabia-students-overseas/index.html>

Majgaard, K. and Mingat, (2012). Education in Sub-Saharan Africa: a comparative analysis. The World Bank Group. Retrieved from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bitstream/handle/10986/13143/9780821388891.pdf;sequence=1>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6). Low-Performing Students: Why They Fall Behind and How To Help Them Succeed. Paris: OECD Publis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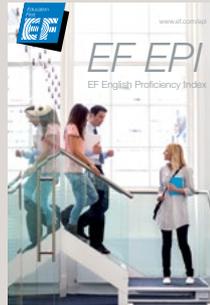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5).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pisa/>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16). Human Development Report 2016: Human Development for Everyone. Retrieved from <http://report.hdr.undp.org/>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014). Education Systems in ASEAN+6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Selected Educational Issues. Retrieved from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2/002267/226757E.pdf>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014). Regional Report about Education for All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trieved from [http://www.unesco.org/fileadmin/MULTIMEDIA/HQ/ED/ED\\_new/pdf/LAC-GEM-2014-ENG.pdf](http://www.unesco.org/fileadmin/MULTIMEDIA/HQ/ED/ED_new/pdf/LAC-GEM-2014-ENG.pdf)

이전 EF EPI 리포트는 [www.ef.co.kr/epi](http://www.ef.co.kr/epi)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제1판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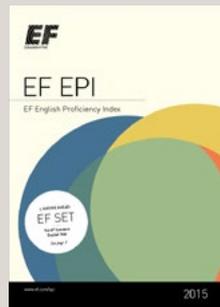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제2판 (2012)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제3판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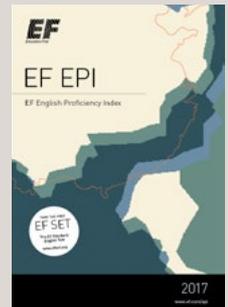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제4판 (2014)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제5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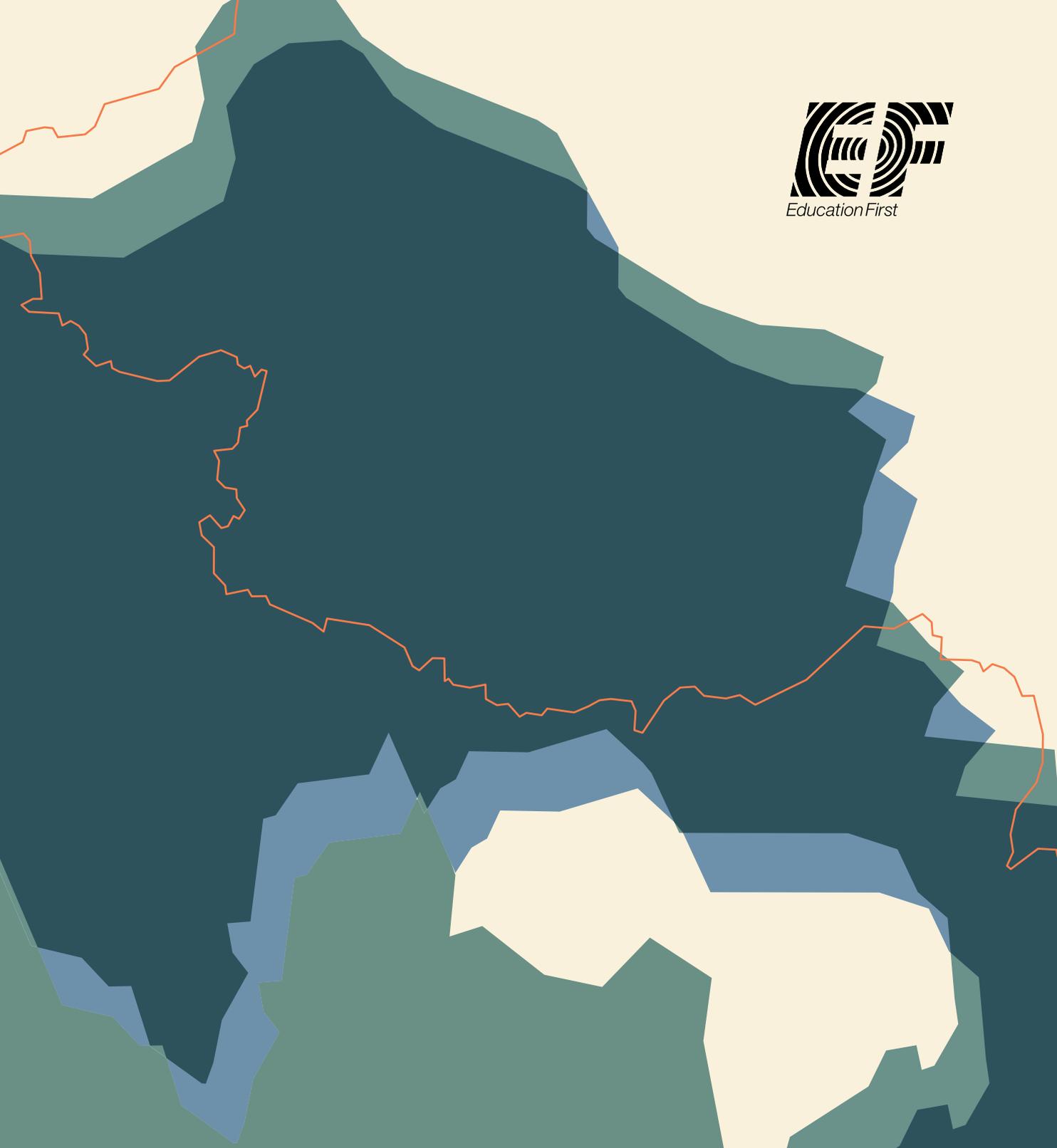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제6판 (2016)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제7판 (2017)





# EF EPI

---

EF English Proficiency Index